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체제 전환기 중국인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

- 소득의 지역간 차이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HONG LIAN

# 체제 전환기 중국인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

- 소득의 지역간 차이 -

지도교수 이 재 열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HONG LIAN

HONG LIAN의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월

위 원 장      장 덕 진      (인)

부위원장      한 신 갑      (인)

위      원      이 재 열      (인)

## 초 록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고 있는가?’ 등 질문과 함께 소득수준과 행복감 사이 관계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진을 가져다준다는 소득과 행복의 정의 관계 연구가 있는가 하면 경제성장의 증가가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의 지적 또한 대표적이다. 개별 국가 내부와 국가별 분석 모두에서 지적했듯 경제성장은 행복의 상대적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경험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개인의 객관적 소득과 주관적 행복도 사이에는 어떤 독립적 개체로서의 개인 차원 효과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 효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요인들이 작용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1978년부터 근 4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 가까이 되는 실질 GDP 성장을 달성하는 거시경제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한정된 자원과 정책지원을 경제발전 여건이 유리한 일부 지역에 집중시켜 그 지역을 먼저 발전시켰던 점진적 개혁개방이 시행되어 지역의 경제적 발전 격차를 보여와 한 국가 내에 산업화와 탈산업화, 근대화와 탈근대화가 함께 혼재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 국가 내부를 대상으로 중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차이를 빚어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차별적인 개혁개방으로 각기 다른 근대화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 차이가 개인소득과의 상호작용으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2013년 중국종합사회조사(China General Social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위계선형모형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시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 환경요인으로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편적 기대를 품고 있는 중국은 성장이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져 차별적 경제적 성장으로 인하여 지역 격차가 나타나는 복합적인 사회 양상에도 개인 수준에서 소득의 증가가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진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가구소득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 변수인 지역의 평균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은 개인의 가구소득효과가 준거집단인 성(省) 단위별 지역주민들의 평균가구소득 수준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미래 경제성장 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 박탈감보다 유효하게 나타나 지역평균가구소득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차이를 빚어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개인수준 변수인 로그가구소득과 집단 수준 변수인 지역인구증가율의 상호작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국 거버넌스의 차별적 개방, 개발 정책은 산업화 진척과 연동되어 지역 격차를 가져와 노동인구의 이동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지역수준의 인구증가율은 소득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적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일수록 개인로그가구소득이 행복에 대한 양의 효과는 증가함을 보였으며 같은 단위의 개인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인구증율이 높은 성(省)급 지역일수록 행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어 : 행복, 소득, 개혁개방, 지역 차이, 상호작용효과, 위계선형모형

학 번 : 2015-22118

# 목 차

제 1 장 서 론.....	0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01
제 2 절 연구의 구성.....	04
제 2 장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검토.....	05
제 1 절 행복의 개념화 및 측정.....	05
제 2 절 소득수준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	07
제 3 절 차별적 개혁개방과 지역 격차.....	13
제 4 절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	20
제 3 장 자료 및 요약 통계.....	22
제 1 절 자료 설명.....	22
제 2 절 분석 방법.....	23
제 3 절 변수 구성.....	26
제 4 절 연구 모형.....	39
제 4 장 분석결과.....	40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결과.....	40
1. 개인수준변수들.....	40
2. 지역수준변수들.....	42
제 2 절 다층분석 결과.....	44
1. 행복감에 대한 지역효과의 크기.....	44
2. 행복감에 대한 개인수준 통제변수의 영향.....	44
3. 행복감에 대한 지역수준 통제변수의 영향.....	47
4. 로그가구소득에 대한 지역 평균가구소득의 조절효과.....	48
5. 로그가구소득에 대한 지역 인구증가율의 조절효과.....	51
제 5 장 결론.....	53
참고문헌.....	56
Abstract.....	73

## 표 목차

[표 1-1] 변수 구성 .....	37
[표 2-1] 연속형·순서형 개인수준변수 기술통계 .....	40
[표 2-2] 명목형 개인수준변수 기술통계 .....	41
[표 2-3] 연속형·순서형 지역수준변수 기술통계 .....	42
[표 3-1] 행복감에 대한 다수준 분석 .....	45
[표 4-1] 지역소득 및 인구증가율과 개인소득의 상호작용분석.....	50

## 그림 목차

[그림 1-1] 중국 3대경제지역 분획도 .....	14
[그림 1-2] 중국 4대경제구역 분획도 .....	16
[그림 1-3] 중국 8대경제지역 분획도 .....	17
[그림 1-4] 4대지역에 따른 소득수준이 행복도에 미치는 차별효과	18
[그림 2-1] 2013년 성(省) 단위별 1인당 GDP .....	19
[그림 2-2] 2013년 성(省) 단위별 1인당 GDP 성장률 .....	19
[그림 3-1] 한·중·일 연도별 행복감 변화 추이(2000-2013) .....	27
[그림 3-2]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 변화 추이 1 .....	29
[그림 3-3]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 변화 추이 2 .....	30
[그림 4-1] 연구 모형 .....	39
[그림 5-1] 2013년 성(省) 단위별 평균가구소득 .....	42
[그림 5-2] 2013년 성(省) 단위별 평균행복도 .....	43
[그림 5-3] 2013년 성(省) 단위별 연평균소득과 평균행복도 .....	43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창립을 계기로 중국은 ‘전민 소유제(全民所有制)’의 사회주의체제 국가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집체소유제(集體所有制)의 과도적 토대를 기초로 1978년 덩소평(鄧小平)은 중국 대륙에서 개혁개방정책(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하였다. ‘實事求是(실사구시)’ 방침에 따라 ‘흑묘백묘(不管黑貓白貓, 捉到老鼠就是好貓) 이론’을 전환점으로 하여 중국은 시장경제체제 도입의 경제성장 중심에 사회건설 박차를 가하였다. 구소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모식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생산물의 대폭 증가를 안아오면서 중국의 경제는 비약적인 도약을 하여왔다.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경제성장 중심의 우위 정책 강조에서 개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복감에 시선을 돌려 사회구성원의 역능감을 느끼고 소외되지 않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화로운 사회건설(和諧社會)’ 움직임들이 보였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주관적 행복감 연구에 역점을 두어 중국 내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하는 다소 규범적인 질문에 대한 사회학적 대답을 찾기에 시선을 돌리었던 것이다.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중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에서도 소득수준과 행복도 사이 관계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진을 가져다준다는 소득과 행복의 정의 관계 연구(Diener, 1985; Ball and Chernova, 2008; Di Tella et al, 2003; Hagerty and Veehoven, 2006; Sacks, Stevenson and Wolfers, 2008, 2013; Inglehart et al, 2008)가 있는가 하면 경제성장의 증가가 꼭 행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Richard Easterlin(Richard Easterlin, 1976)의 지적 또한 대표적이다.

이스털린(Easterlin)은 미국이 1960년대 이래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있었음에도 행복감은 반세기 이상 거의 변화하지 않음을 예제로 짧은 특정 시기 한 사회 내 고소득층 사람들은 저소득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시간이 흘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 전반이 더 부유해지면 개인 수준의 평균적인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Easterlin, 1974). 절대적인 소득수준에 의해서만 인간의 행복감이 결정된다는 가설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며(Easterlin, 1995) 1960년 이후 경제 성장으로 소득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자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실증분석으로 개인의 효용은 현시된 행위에 의해 추정되는 재화와 용역에 의존한다는 효용함의(utility function) 가정에 의문을 던져주었다. 아울러 국가별 분석에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행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부유한 국가의 경우에는 소득이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Frey and Stutzer, 2002) 또한 찾아볼 수 있었으며 데이비스(Davis)와 그의 동료들도 소득이 개인의 행복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행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한 국가의 복지 수준과 같은 외형적 지표 격차로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행복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Davis et al., 1982).

그러나 상기 경제성장의 증가가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견과 반대로 다시 개별 국가 내부를 관찰하였을 때 또 다른 연구들은 한 사회 내에서 짧은 특정 시기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혔다(Diener et al., 1985). 한 사회 내에서 고소득층 사람들은 저소득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며 개인수준에서는 소득, 자산과 행복감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스털린의 주장과 상반되는 논의로 소득이 행복감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반영한 연구에는 개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한 국가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설명도 건의된

바 있으며(Di Tella, MacCulloch and Oswald) 잘 사는 국가에도 삶의 질의 포화점(satiation point)이 없다는 반론도 거론되었다(Deaton, 2008).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적 성장이 행복의 향상을 동반한다는 베인호벤(Veenhoven)과 헤거티(Hagerty) 의견과 같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처럼 소득이 행복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Angus Deaton, 2000; Diener, Horwitz, Emmons, 1985; Ball and Chernova, 2008; Hagerty and Veehoven, 2003; Sacks, Stevenson and Wolfers, 2008).

결국, 개별 국가 내부와 국가별 분석 모두에서 지적했듯 경제성장은 행복의 상대적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경험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어떤 사회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행복의 증가를, 또 일부 사회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표면적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스털린의 역설과 같은 주장은 국가수준에서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만 주목한 것이므로 이로서 개인들 간에도 소득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단순히 주장하게 되면 표면적 현상에 매혹된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문헌리뷰에서도 지적했듯 한 나라 안에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 개인수준에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행복감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됨과 아울러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은 국가의 평균적 행복감을 증대시킨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을 위해서는 다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다수준양적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행복의 감소를 안아오는지 의견이 다분한 현 시점, 짧은 기간 동안 시장개방, 개혁, 복지 변화의 발전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서로 다른 산업화 속도에 따른 차별적 경제성장이 진척된 중국의 경우 행복은 소득순일까?

## 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한 국가 내부를 대상으로 중국의 행복에 대한 소득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차이를 빚어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차별적인 개혁개방으로 각기 다른 근대화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 차이가 개인소득이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압축적 경제성장이라는 큰 배경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점진적 발전과정을 겪은 서구 사회와 달리 거버넌스의 차별적인 개방, 개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산업화 지척과 연동되어 지역 격차를 가져와 노동인구의 이동현상을 동반하였다. 이런 거시적 사회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소득에 따른 중국인의 행복감 변화는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등 질문과 함께 글에서는 2013년 중국종합사회조사(China General Social Survey)를 이용한 위계선형모형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해답을 찾으려 하였다.

1978년부터 개혁개방 근 40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되는 실질 GDP 성장을 달성하는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전제로, 중국은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편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데 먼저 글의 시작에서 개인 수준에서 소득의 증가가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개인의 가구소득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 변수인 지역평균소득 변수와의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에 포함시켜 공동분배에서 효율분배로의 제도적 전환을 겪으면서 절대소득보다 상대소득의 효과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작동하는지 아니면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작용하는지를 알아가고자 한다. 한 걸음 나아가 개인수준변수인 개인의 가구소득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 변수인 지역 인구증가율과의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에 포함시켜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 효과가 거시적 구조요인을 반영하는 지역 인구증가율의 차이로 인하여 유의미하게 달라지는지를 시사하고자 한다.

## 제 2 장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검토

좋은 사회, 좋은 삶, 행복에 대한 고민은 어느 세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꾸준히 관심받는 대상이었다. 탈산업화, 탈근대화사회로의 배경 전환은 정서적 행복감에서 시작된 사람들의 관심 주제가 점차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개인적 접근의 삶의 질,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 구조적이고 이론적인 모델로서의 사회의 질인 인지적 행복감 논의로까지 진화하였다.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는 행복이라는 추상적 현상을 측정 가능한 변인으로 구체화하여 유엔(UN)이 발표한 행복 지수와 갤럽(Gallup)이 제시한 긍정경험지수(Positive Experience Index),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등 관련 지수 탐색들이 지속되면서 경험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행복 지표화 선행연구검토에 앞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행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를 시작으로 이론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

### 제 1 절 ‘행복(幸福)’의 개념화 및 측정

20세기 중기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복도 결정요인 연구는 건강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에 폭넓게 걸쳐있는 바 행복에 대한 내용 정의도 다양했다. ‘행복은 정확히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진다. 행복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기에 그만큼 정의의 범위가 넓고 논쟁적이며 내용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단일 개념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검색하면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거나 그러한 상태’로 정의되었다. 이렇듯 행복은 스스로가 삶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가 문제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Kalmijin and Arends 2010, 148)

행복의 의미를 둘러싼 뿌리 깊은 논쟁은 주관적 행복감과 객관적 행복감 사이의 충돌이다. 주관적 행복감은 ‘주관적으로 좋은 심리상태’를 말하며 개인 스스로가 행복의 정도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여 설문 조사를 통한 자기보고 방식에 근거한다. 이와 달리 객관적 행복감은 즐거움이나 만족의 원천, 대상을 고려하여 행복은 인간이 인간의 존재로서 마땅해 도달해야 할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태여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실현적 인지적 평가로 구성된다. 이른바 이성에 따른 덕행을 통해서만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자아실현 내지, 보다 고차원적인 삶의 의미 실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객관적 행복은 개인 역량 발현의 징표로 간주된다.

그러나 객관적 입장의 행복감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판정할 객관적 기준이 다양하게 제시되며 그 기준들이 충돌하면서 보편적인 기준을 내세울 순간 ‘도덕적 간섭주의’ 혹은 ‘중립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규탄을 받게 된다. 17세기 18세기 계몽시대를 거치면서 행복은 사회적 또는 지적 엘리트,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 원칙적으로 획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즐겁거나 만족스러운 심리상태로 정의되어서 행복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현재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였다. 쾌락적 안녕(hedonic well-being), 즉 하루하루 느끼는 감정적 경험마저도 삶에 대한 평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것이다(Graham 2011).

그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은 서베이를 통하여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었다. 갤럽조사식으로 “전반적인 삶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에 “아주 행복, 보통, 아주 불행”이라는 해답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행복감,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0~10점)?”라는 질문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 아울러 “0점부터 10점까지의 사다리가 있다면 당신은 현재 몇 번째 계단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한 캔드릴사다리 방법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 갤럽이나 캔드릴의 설문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주관적 평가를 대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단순함은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킨다(Schyns, 1998).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보고 되는 단일차원의 행복 문항의 구성 타당도는 많은 연구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샌드빅과 그의 동료들(Sandvik, Diener and Seidlitz, 1993)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행복 문항,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질문지 등과 대안적 문항, 그리고 타인에게 관찰된 연구참여자의 감정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역시 높아 기존에 행복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일 차원의 자기보고식 문항의 타당성을 보였다.

본 글에서는 자기실현적 인지적 평가 이념을 행복에 영향 주는 요인으로 고려하나 데이터 사용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분석을 통한 논증을 제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 계량화 측정 지표로는 행복을 “전반적인 삶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기준으로 정의하려 한다. 단일 차원의 행복 측정 문항으로써 2013년 중국종합사회조사(CGSS)에는 갤럽 식으로 조사된 행복 5점 척도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 제 2 절 소득수준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

행복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뒤따르는 물음은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다. 지구촌의 다수 국가가 자체 국민의 삶의 질, 행복감 향상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소득의 증가, 경제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에 의하여도 소득은 행복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지목되고 있다(Davis, Fine-Davis & Meehan, 1982).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이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태여서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의 증가는 곧바로 행복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여겨지지만, 대조적으로 경제가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물질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충족된 상태에서 경제성장이 주는 행복감 향상 폭이 전보다 작아지게 되며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으로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앞선 논의는 소득의 증가가 인민의 행복을 증진해 준다고 여겨지던 데로부터 경제성장의 증가가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1974년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화제를 일으켰다. 지난 세기 70년대 이스털린(Easterlin, 1974)은 1946년에서 1970년까지의 미국의 1인당 평균소득은 60% 가까이 지속해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은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는 통계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 전반이 더 부유해진다고 해도 개인 수준의 평균적인 행복감 증진에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른바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이 널리 알려졌던 것이다(Easterlin, 1974). 이후 많은 연구는 이스털린의 주장을 검증하였으며(Venhoven, 1993; Blanchflower, 1993; Easterlin, 1995; Lane, 1998; Myers, 2000; Di Tella et al., 2003; Vitterso, 2004)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소득수준이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면 더이상 영향력을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 일부 연구들에서는 심지어 소득이 행복에 선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보였다. (Sing, 2009; Yao, Cheng, & Cheng, 2009, Park, 2009;

Inoguchi & Fujii, 2009). 국가별 분석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에서는 행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부유한 국가의 경우에는 소득이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Frey and Stutzer, 2002) 또한 찾아볼 수 있었으며 데이비스(Davis)와 그의 동료들도 소득이 개인의 행복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행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한 국가의 복지 수준과 같은 외형적 지표 격차로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행복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Davis et al., 1982).

그러나 상기 경제성장의 증가가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견과 반대로 다시 개별 국가 내부를 관찰하였을 때 또 다른 최근 연구들은 한 사회 내에서 짧은 특정 시기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한 사회 내에서 고소득층 사람들은 저소득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며 개인 수준에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행복감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에는 또한 개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한 국가들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설명도 건의된 바(Di Tella, MacCulloch and Oswald, 2003)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처럼 소득이 행복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Angus Deaton, 2000; Diener, Horwitz, Emmons, 1985; Ball and Chernova, 2008; Hagerty and Veehoven, 2003; Sacks, Stevenson and Wolfers, 2008).

ית따라 흥미로운 부분은 최근 연구들에서 위와 같은 소득과 행복 사이 정의 관계 논증과 더불어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의 추가적 증가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의 향상 폭이 전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추가적 설명이 붙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절대적 소득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타인과의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 비교나 본인 스스로의 기대수준(aspiration level)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Clack & Oswald, 1996; McBride, 2001; Ferrer-i-Carbonell 2005; Lutter, 2005; Clark, Frijters and Shields 2008).



중국에서도 일찍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졌는데 형점군(邢占軍)은 산둥성(山東省)의 7년(2002-2008) 데이터를, 주건방과 양효란(朱建芳, 楊曉蘭)은 World Value Survey(1999-2002) 데이터를 통하여 GDP와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유군강, 웅모림, 소양(劉軍強, 熊謀林, 蘇陽) 등은 CGSS(2003, 2005, 2006, 2007, 2010) 데이터를 통하여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라초양(羅楚亮)은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을 분류하여 행복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CHIP 데이터를 통하여 보여주었으며 왕봉(王鵬)은 CGSS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농 간의 차이, 사회보장체제의 발전 차이 조절효과 분석을 통하여 소득 격차가 행복에 미치는 차별 효과를 분석하는 등 후속 연구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중국인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고 소득 이외 성별, 혼인 등과 같은 개별 변수 분석에 국한된 다중회귀분석 경우가 많았으며 2013년 최신 CGSS 자료를 이용한 전국 범위의 행복감 다수준양적분석, 특정한 지역이 아닌 중국 사회 전반의 행복감 변화 추세와 그에 영향을 주는 기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 토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듯 중국 내에서도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행복의 감소를 안아오는지 의견이 다분하며 앞선 문헌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듯 개별 국가 내부와 국가별 분석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경제성장은 행복의 상대적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경험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평균소득 1만 달러를 전후하여 경제성장과 행복감 사이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논의점과 ‘왜 더 많은 소득이 더 큰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선행연구 이론정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됐다. 선택을 통한 효용을 강조한 해석으로 개인이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는데 허쉬(Hirsch, 1976)의 물질재와 위치재 개념을 차용하여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앞서서도 밝혔던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이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허쉬(Hirsch, 1976)의 이론에 의하면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태여서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의 증가는 곧바로 만족감과 행복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의식주가 걱정되는 단계에서는 이른바 행위자 본인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를 필요로 하며 물질재 소비는 곧바로 행복의 상승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개인은 의식주 욕구를 충족시킨 이후 심리학의 습관화 (habituation) 이론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함께 따라 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개인은 상당 수준의 삶의 변화를 겪더라도 금시 적응(adaption)하여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의 기대수준(aspiration level)을 계속 높여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높아진 소비수준에 만족감을 느끼기 힘든 측면 또한 혼재하여 작동하고 있다. 1만 달러 경험적 기준으로 경제가 상대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로 보았을 때 소속된 사회의 행위자는 개인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만 상정하기보다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아 준거집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물질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충족된 상태에서 지위재가 더 중요해지며 물질재의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는 행복감의 향상 폭이 전보다 작아지게 되는 ‘풍요의 역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물질재를 둘러싼 경쟁은 공급을 확대하면 완화되나 지위재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열이 중요하기에 이를 둘러싼 경쟁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의 딜레마에 빠지는 특징을 가진다.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소비수준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타인, 즉 준거집단(reference group)과의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 비교(comparison)로 인하여 타인들의 소비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위어움(Verm)이 지적했듯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은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계에서 의식주 욕구를 충족시킨 이후 단계로 넘어오면서 “나” 자신의 단순한 개인효과뿐만 아니라 행위 관계망 속의 행위자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전제할 때 클록(Clark et al, 2008)이 주장한 것처럼 개인이 행복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절대 소득(absolute income)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소득 (relative income)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공감하긴 쉽다.

다만 상대소득을 통한 비교에는 런시먼(Runciman, 1966)이 주장하는 일반적 통념인 준거집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외 실제 규명되지 않는 시각 하나가 더 존재하는데 바로 상대소득이 기대심리나 동기부여로 작동할 수 있다는 (Hirschman & Rothschild, 1973) 이론적 예측, 즉 터널효과(tunnel effect)도 작용할 수도 있어 결국 상대소득은 행복감 감소와 증가와 같은 쌍방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터널효과를 예를 들면 터널 안 두 차선에 위치한 운전자는 옆 차선에 있는 차량들이 자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이 관찰될 때 자신의 차선도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expectation)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공유한 준거집단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자신의 소득도 곧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고 그 기대를 통해 주관적 후생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이 곧 위에서 가리킨 터널효과이다(Verme, 2011).

중국국가통계청 데이터 기준 2015년 중국의 GDP는 676,708억 위안(998,686억\$)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1인당 GDP는 49,351위안(7,283\$)인 발전 도상 국가 수준이다. 평균소득 1만 달러 미만인 중국에서 성장이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지, 한 걸음 나아가 공동분배에서 효율분배로의 제도적 전환을 겪으면서 절대소득보다 상대소득의 효과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작동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작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일부 집단(특히 소수집단)에 따라 그 민감 정도(sensitivity)가 다르고 준거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들에 영향을 받는 개인은 이제 삶의 지침이 되는 타인이라는 준거집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소득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함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 조건의 차이에 의한 사회 비교를 보편적인 측면에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준거집단 중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는 대상이며 동시에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비슷한 생활공간과 지역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가까운 단위인 같은 성(省)내에 위치한 주민들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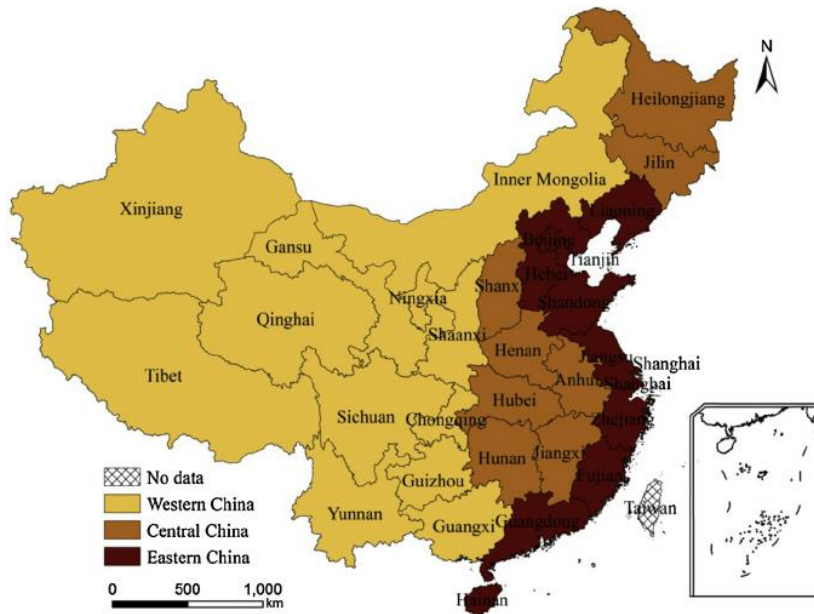
### 제 3 절 차별적 개혁개방과 지역 격차

개혁개방 초기 중국 정부는 한정된 자원과 정책지원을 경제발전 여건이 유리한 일부 지역에 집중시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차별적 개혁개방을 진행하였다. 즉 지리적 위치와 경제건설 조건, 현실적 경제기술 수준 차이에 근거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단계적, 점진적 대외개방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시장경제화의 속도가 빠르고 일찍부터 대외개방이 큰 폭으로 진행되어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된 연해지역과 그렇지 못한 내륙지역, 시장화가 활성화된 남부지역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북부지역 사이에 경제적 발전 격차가 확대되었다.

서구에서 시장을 기초로 한 지역의 발전격차와는 다소 구별되는 국가정책전략에 따른 중국 지역 수준의 격차 변화 맥락을 간단히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986년 제6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된 “75 계획”에서는 중국을 동부, 중부, 서부 세 경제지대로 나누어 시장경제시기 지역 분화를 구획하였다. 지리적 위치, 경제건설 조건, 현실적 경제기술수준, 지역 차이에 근거하여 동부는 요녕성, 천진시, 북경시, 하북성, 산둥성, 강소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 광서좡족자치구, 해남성 등 12개 성, 시, 자치구를 포함하고 중부는 흑룡강성, 길림성, 내몽골자치구, 산서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등 9개 성, 자치구를 포함하며 서부는 섬서성, 감숙성, 녕하회족자치구, 청해성, 신강위그르자치구, 중경시,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저장장족자치구 등 10개 성, 자치구를 포함되게 ① 나뉘었으며 각 지역 우세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중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업과 협력,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림1-1〉 중국 3대경제지대 분획도



처음에는 중국 국내 사회주의 경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자도입을 통한 수출 산업 발전을 서두로 개혁개방을 시작하였다. 중국 정치 중심인 북쪽 지역과는 다소 동떨어진 남방 연해지역, 우선 1979-1980년에는 광둥성(廣東省)의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 복건성(福建省)의 하문(廈門)에 일종의 수출자유지역 공단인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① 동부 지역 대응 한자 표시: 遼寧省, 天津市, 北京市, 河北省, 山東省, 江蘇省, 上海市, 浙江省, 福建省, 廣東省, 廣西壯族自治區, 海南省

중부 지역 대응 한자 표시: 黑龍江省, 吉林省, 內蒙古自治區, 山西省, 安徽省, 江西省, 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서부 지역 대응 한자 표시: 陝西省, 甘肅省, 寧夏回族自治區, 青海省, 新疆維吾爾自治區, 重慶市, 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西藏藏族自治區

다음 한정된 자원과 정책지원을 경제발전 여건이 유리한 일부 지역에 집중시켜 1984년에는 개방지역을 상해(上海)와 천진(天津) 등 14개 ‘연해개방도시’와 해남도(海南島)를 추가로 개방하였으며 1985년에는 3대 연해경제개발구인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민남 삼각구(閩南三角洲)로 확대하였다. 개혁개방을 점에서 선으로의 확장하여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동부연해지역의 개방 폭을 먼저 집중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제특구(經濟特區), 개발구(開發區)에 이어 정부는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켰으며 구체적으로 1990년에는 상해의 ‘포동지구(浦東地區)’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고 1991년에는 천진(天津)을, 1992년에는 대련(大連)을, 같은 해 6월에는 광주(廣州) 등을 자유무역지대로 확정하였다. 1992년에 이르러 중국은 동부연해지역에서 중서부 내륙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 무역, 금융, 유통업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개방의 범위를 점층적으로 확대하여 중국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전방위 대외개방’ 방침을 확정했다.<sup>②</sup>

개혁과 개방은 ‘점’에서 외부와의 교통과 교류가 편한 동부연해 중심의 ‘벨트’로, 그다음 내륙으로 이어지는 장강과 황하, 하천을 따라 “开”자 모양으로 그 연안지역 개방 폭을 넓혀갔으며 철도의 확장과 함께 개혁과 개방의 연장을 점, 선, 지대 그물망 구조로 파급해 왔다. 초기 동, 중, 서부지역 구획에서 시작되어 40년 가까이 지속적인 변화 발전을 가져오면서 ‘3대경제지역(동부, 중부, 서부)’ 유형화는 현실 상황을 담아내기엔 이제 제한적이기에 지역 분획 업그레이드화가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중국국가통계청에서는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제시한 중부지역 쉼기 추진을 위한 약간의 의견>과 <서부대개발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원의 의견 제시> 및 중국 공산당 제16차 인민대표대회 연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2011년 6월 11일에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의 경제지역을 재분획하였다.

② 李嵐清. 1995. “中國利用外資知識”. 中國中央黨校出版社, 中國對外貿易出版社. 56-57

〈그림1-2〉 중국 4대경제구역 분획도



현시점의 지역 경제발전상황을 반영하여 재구획한 중국 동부는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둥성, 강소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 해남성 등 10개 성, 시를 포함하며 중부는 산서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등 6개 성을 포함하고 서부는 내몽골자치구, 광서좡족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녕하회족자치구, 칭해성, 신강위그르자치구, 중경시,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저장장족자치구 등 12개 성, 자치구, 시를 포함하며 동북부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3개 성을 포함하고 있다. ③

4대경제구역 분류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지역 분획 대표기준이며 이 외 동부와 서부, 북부와 남부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③ 동부지역 대응 한자 표시: 天津市, 北京市, 河北省, 山東省, 江蘇省, 上海市, 浙江省, 福建省, 廣東省, 海南省

중부지역 대응 한자 표시: 山西省, 安徽省, 江西省, 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서부지역 대응 한자 표시: 內蒙古自治區, 廣西壯族自治區, 陝西省, 甘肅省, 寧夏回族自治區, 青海省, 新疆維吾爾自治區, 重慶市, 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西藏藏族自治區

동북부지역 대응 한자 표시: 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

고려하여 더욱 세부적인 분획방식으로 8대경제구역 분획기준도 존재하는데, 동부연해로부터의 거리기준으로 횡단적 구분, 그다음 내륙으로 이어지는 장강과 황하, 하천, 철도에 따른 종단적 구분으로 중국 내륙을 모두 북부연해구역(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동부연해 구역(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남부연해지역(북건성, 광둥성, 해남성), 동북 지구(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황하중류지역(산서성, 내몽골성, 섬서성), 장강중류지역(호북성, 호남성, 안휘성, 강서성), 대서북지역 (서장장족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녕하회족자치구, 신강위그르자치구), 서남지역(중경시, 사천 성, 귀주성, 운남성, 광서좡족자치구) 등 8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분획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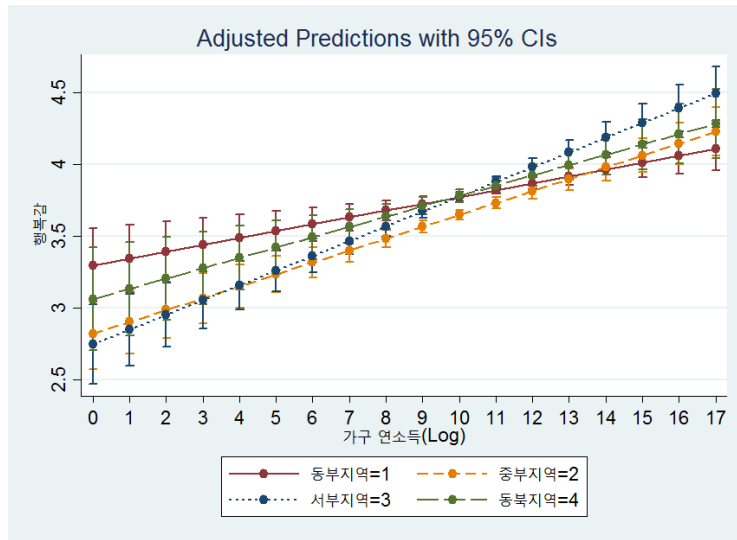
〈그림1-3〉 중국 8대경제지역 분획도



위와 같은 거버넌스의 차별적 개방, 개발 정책은 동, 중, 서, 동북부와 북부, 남부 지역 격차를 야기시켰으며 산업화 진척과 연동되어 지역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 인프라 건설, 환경오염 정도, 정부의 효율성 등 제반 요인의 차이를 가져왔으며 노동인구의 이동을 동반하여 기술체계와 고용체계 변화 또한 촉진하여 소득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차별 효과를 초래하여왔다.



〈그림1-4〉 4대경제지역 유형에 따른 소득수준이 행복도에 미치는 차별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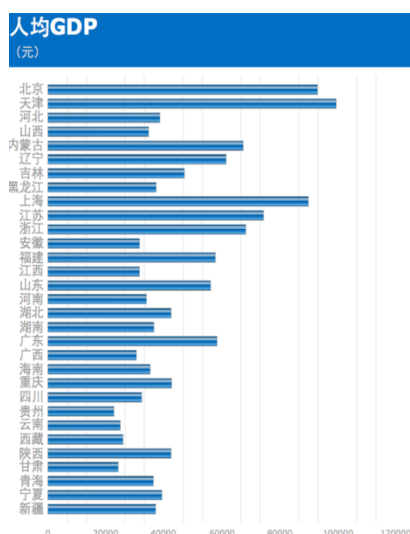
201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그림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동부지역의 절편이 가장 크며 그다음으로 동북, 중부, 서부 순으로 높은 차이를 보여 저소득가구 대비 동부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기타 지역 사람들의 느끼는 행복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동부지역은 소득의 증가로 인한 행복도 변화가 다른 지역 대비 크지 않은데 반해 동북, 중부, 서부는 기울기가 크며 4대경제지역 중 서부지역의 기울기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단계적, 점진적 대외개방은 40년 가까이 동, 중, 동북, 서부 지역 간, 남과 북 지역 간의 경제 격차를 가져왔으며 더 구체적으로 차별적 개발전략 실시로 시장경제화의 속도가 빠르고 일찍부터 대외개방이 큰 폭으로 진행되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된 동부 연해지역과 그렇지 못한 중부, 서부 내륙지역 사이, 그리고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환발해권(環渤海 地區), 서남지역(西南地區)과 동북지역(東北地區), 황하중류지역(黃河中流 地區), 대서북지역(大西北地區) 즉 남과 북의 소득에 따른 행복 격차도 가져왔다.

상응되는 주장으로 중국 청화대학(清華大學) 후안강(胡鞍鋼) 교수 또한 지역적 차이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하나이면서 네 개의 ‘세계’로 구성된다는 의견을 제기한 적 있다. 그에 의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실제구매력 평가, PPP)기준으로 상해(上海), 북경(北京), 심천(深圳) 등 세 개 도시는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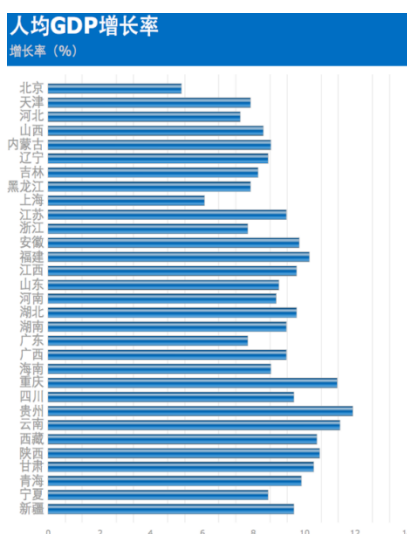
총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을 기록해 중국의 ‘제1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천진(天津), 광둥 (廣東), 절강(浙江), 강소(江蘇), 복건(福建), 요녕(遼寧) 등 연해지역은 전국 인구의 21.8%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중등 수입국과 같은 수준의 실질 국내총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은 ‘제2세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북(河北), 동북(東北), 화북(華北) 등 중부지역은 전국 총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등 이하의 실질 국내 총생산을 기록하여 중국의 ‘제3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전국 인구 50%는 세계적으로 140위 이하의 저소득 수준으로 중국의 ‘제4세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 안에서도 북경(北京), 상해(上海)와 같은 발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귀주(貴州)와 같은 저발전 지역 또한 구별되어 존재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지역적 차이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경제발전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 중국국가통계청(中国国家统计局) 2013년 성(省)급 단위 지역 GDP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그림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배일 뒤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적게 받고있었던 지역 간 선명한 경제수준 격차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림2-1〉 2013년 지역 1인당 GDP



〈그림2-2〉 2013년 지역 1인당GDP 성장률④



④ 2014 China Statistical Yearbook', Published by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순차적 발전과정을 겪은 서구 사회와 달리 압축적인 성장 과정을 겪은 중국은 기술적 혹은 산업구조 변화에서 전통적인 것, 근대적인 것, 그리고 탈근대적인 것들이 시기적으로 확연히 구분되지 못하고 한 나라 내부에, 산업화와 탈산업화 정도가 다르게 진척된 모습을 띠고 있다. 결국, 중층성과 복잡성이 혼재한 한 국가 내 서로 다른 지역, 단순한 4대경제지역 구분을 넘어 중국 대륙의 28개 성(省)급 단위 지역 격차에 포커스를 두어 소득과 행복감 사이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은 쟁점이 파다한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를 투영하는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간주된다. 행복 연구 사례로서 중국은 14억 가까이 인구와 다양한 민족 특성, 변화의 지역 격차 등이 혼재하고 있어서 한 국가 내 지역 수준의 차이 비교가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구촌 육지면적의 약 7%, 인구 약 14억으로 전 세계 인구수의 18%를 넘는 한 국가에서 거버넌스 영향 주도하에 차별적인 개혁개방이 진척되어 서로 다른 경제성장과 시장화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 차이가 개인적 차원의 소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중국사회 맥락에서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가고자 한다.

## 제 4 절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

소득뿐만 아니라 행복 결정요인에는 다양한 기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디너(Diener et al. 1999)등은 행복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정리하였는데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외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소득수준, 종교, 학력, 결혼상태, 사회관계 등과 응답자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인구학적 요인들로 구분하고, 내적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기질적 경향, 성격, 자아존중감을 포함하고 있었다. 프로이와 스터처(Frey and Stutzer, 2002) 또한 개인적 요소, 사회인구학적 요소, 경제적 요소, 관계적 상황 요소, 제도적 변수와 같은 5가지로 행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돌란(Dolan et al., 2008) 또한 1990년 이후 경제학이나 심리학 저널에서 발표된 주관적 웰빙, 행복,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논문들을

정리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 개인적 특성, 사회학적 특성, 시간 사용, 태도와 신념, 관계, 거시환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개인을 행위 관계망 속에 배태된 행위자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안할 때 필자는 소득 이외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적 관계 요인, 환경 요인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건강, 혼인 상태,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개인 수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이는 변수들로 구성되었고 개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에는 사회단체 참여 정도, 인터넷 사용빈도 등이 포함되며 구조적이고 상황적인 환경요인에는 이를테면 성장률, 실업률, 도시화율,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정치체제나 정부의 질과 같은 제도적 환경요인, 자연환경이나 쾌적성과 같은 자연적 환경적 요인, 과거의 사회경제적지위와의 비교와 같은 동태적 상황적 환경요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Bjørnskov, 2008; Bok, 2011; Di Tella, MacCulloch and Dswald, 2001; Niener, 2009; Frey and Stutzer, 2002; Rodriguez-Pose and von Berlepsch, 2014; 黃麗清·邢占軍, 2005; 陳婉婷·張秀梅, 2013).

중국의 다른 행복도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득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사회관계를 고려한 사회자본 요인과 환경적 요인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 최근의 행복도 연구에 있어서 사회자본이나 통합 등 사람들 간 관계, 자율성 정도, 시간에 따른 사회경제적지위 변화,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등 구조적이고 상황적인 환경요인 등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구조 속에 배태된 행위자로 사회적 관계,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환경요인 변화 등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Helliwell et al. 2014; Helliwell & Wang, 2010).

## 제 3 장 자료 및 요약 통계

### 제 1 절 자료 설명

본 논문은 2013년에 시행된 제8차 CGSS(China General Social Survey, 중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CGSS는 중국 중국인민대학교(Renmin University of China)와 홍콩과학기술대학교(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함께 주최하여 중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표본조사 프로젝트로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취업 및 근로 실태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아울러 중국 내 특정 사회적 사건이나 문제 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는 중국의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전국 28 개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18세 이상 성인 남녀 1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대인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구주와 가구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특성은 물론, 가구 유형과 소득 등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절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2013년 CGSS조사는 총 11,438개의 표본 케이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CGSS자료는 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오차를 줄여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을 결측치 처리한 뒤 총 9,239개의 사례가 활용되었다. 지역 단위 통제변수들은 중국국가통계청(中國國家統計局)에서 제공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단위의 지역별 통계자료들을 사용하였다.

## 제 2 절 분석방법

### 1. 1단계 -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첫 단계는 다수준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개인수준의 소득분포 특성과 행복감 차이를 파악하고 나아가 성(省)급 지역수준의 집단 간 지역평균 소득과 행복감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지역별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위 분석을 위하여 STATA ver. 14가 사용되었다.

### 2. 2단계 -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득의 지역 간 차이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행복감에 대한 지역 효과를 가정하고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를 구분하는 다수준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개인, 단일수준 모형분석은 분석의 단위, 회귀계수의 변산, 공상관 요인, 층위 간 상호작용, 신뢰도 측면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강상진, 2005). 즉 집단수준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수준 변수와 집단수준 변수를 일반 회귀분석에 투입할 경우 군집효과가 나타나고 독립성과 등분산성 가정이 깨질 우려가 있어 정확한 계수추정이 어렵다.

그러나 다수준 분석방법은 각기 다른 수준의 변수들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며 잔차의 독립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Raudenbush and Bryk, 2002; 이희연·노승철, 2013). 상위수준의 변수에 관계된 사례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수준의 변량과 집단수준의 변량으로 나누어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변량의 변화를 분석해주며 아울러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볼 수 있어 분석에 용의하다. (Schyns, 2002). 글에서는 이번 단계 분석 진행을 아래와 같은 3절차로 나누어 진행하려 한다.

## 가. 기초 모형

먼저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상수항만을 갖는 기초 모형(null model)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대한 전체 분산의 양에서 자료에 포함된 28개 성(省) 급 단위에 거주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분산의 양을 상대적으로 살펴보는 무조건 모형이다. 기초 모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text{level 1: } y_{ij} = \beta_{0j} + e_{ij}$$

$$\text{level 2: } \beta_{0j} = \gamma_{00} + u_{0j}$$

다층분석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인  $y_{ij}$ 의 값을 집단 $j$ 의 평균인  $\beta_{0j}$ 와 개인의 잔차 $e_{ij}$ 로 구분한다. 다시  $\beta_{0j}$ 는 또  $\gamma_{00}$ 와  $u_{0j}$ 로 구분할 수 있다. 종속변수  $u_{0j}$ 를 구성하는  $\beta_{0j}$ 는 전체 평균인  $\gamma_{00}$ 와 소속된 집단의 변량인  $u_{0j}$ 로 구분한다. 즉, 종속변수  $y_{ij}$ 의 절편은 집단의 특성인  $u_{0j}$ 의 변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구별한 것이다. 만약  $u_{0j}$ 의 변량이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낸다면, 다층분석에서는  $u_{0j}$ 의 유의미한 차이를 구별해준다. ⑤

## 나. 무작위절편모형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이 있는지 무작위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 검증을 진행한다. 다음, 개인수준의 영향력을 설명해 낸 이후에 남아있는 지역수준의 분산을 지역수준의 통제변수를 통해 추가 설명하여 본다. 무작위절편모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text{level 1: } y_{ij} = \beta_{0j} + \beta_{1j} \times (\text{individual level variables}) + e_{ij}$$

$$\text{level 2: } \beta_{0j} = \gamma_{00} + u_{0j} \times (\text{regional level variables}) + u_{0j}$$

---

⑤ 다층분석기법에 관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Raudenbush and Bryk, 2002; Schyns, 2002; 강상진, 2005; 이희연·노승철, 2013; 최필선·민인식, 2012; 류지아, 2016)

## 다. 수준간 상호작용모형

수준1과 수준2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여 수준별 독립변수간의 효과를 확인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text{level 1: } y_{ij} &= \beta_{0j} + \beta_{1j} \times (\text{individual level variables}) + e_{ij} \\ \text{level 2: } \beta_{0j} &= \gamma_{00} + u_{0j} \times (\text{regional level variables}) + u_{0j} \\ \beta_{1j} &= \gamma_{10} + \gamma_{11} \times W_j(\text{regional level variables}) + (u_{0j}) \quad \textcircled{6}\end{aligned}$$

다층분석모형은 하위수준(1수준)변수와 상위수준(2수준)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개인변수  $X_1$ 의 효과를 집단수준인 2수준의 변수에 의한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변수인 개인의 가구소득  $X_1$ 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 변수인 지역평균소득 변수의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에 포함한다. 또한, 개인변수인 개인의 가구소득  $X_1$ 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 변수인 지역인구증가율의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도 분석에 포함하여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 효과가 지역평균소득 수준에 의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지, 거시적 근대화 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관련된 지역생태학적 변수인 인구증가율의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위 방정식과 결합하여 재해석하면 위의 수식에서  $\beta_{1j}$ 는 집단수준변수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를 가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  $\beta_{1j}$ 를 조절하는 2수준 집단변수로 지역별 평균가구소득 변수와 지역인구증가율 변수를 투입하게 된다.

---

⑥ 28개 상(省)별로 지역수준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지 않을 경우, 해당 무선효과는 검증되지 않으며 고정효과를 가정하게 된다. 이 때 고정효과는 상호작용효과 검증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 제 3 절 변수 구성

#### 1. 종속변수: 행복감<sup>⑦</sup>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행복을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꺾임식으로 조사된 CGSS 2013년 설문지의 A36번 질문 “귀하의 전반적인 삶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선택하여 1점 ‘매우 불행하다’부터 5점 ‘매우 행복하다’까지의 5점 척도 문항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하고 무응답 58 사례를 결측치 처리하여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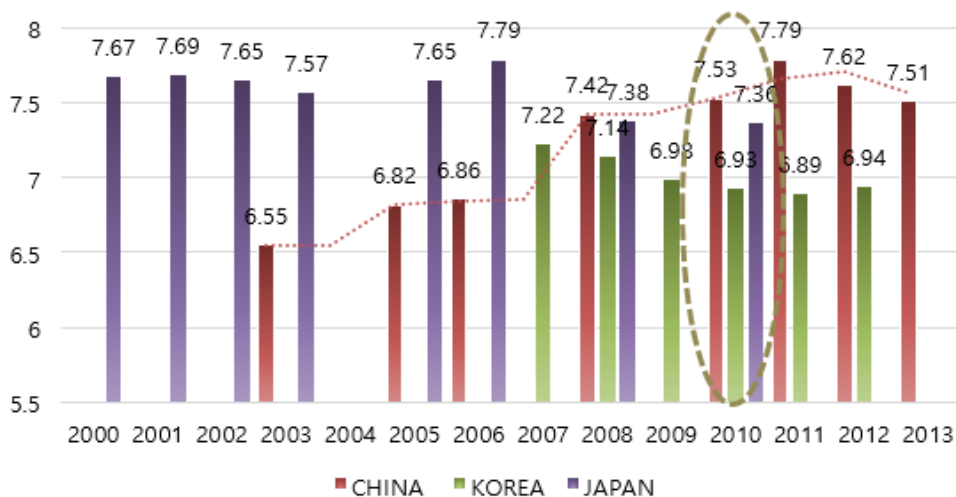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단순함은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킨다(Schyns, 1998).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보고 되는 단일 차원의 행복 문항의 구성 타당도는 많은 연구에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샌드빅과 그의 동료들(Sandvik, Diener and Seidlitz, 1993)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행복 문항,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질문지 등과 대안적 문항, 그리고 타인에게 관찰된 연구참여자의 감정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역시 높아 기존에 행복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일 차원의 자기보고식 문항의 타당성을 보였다. 특히, 꺾임식으로 조사된 행복 5점 척도는 대표적인 단일차원의 행복 측정문항으로써 중국종합사회조사(CGSS) 2013에서도 이 문항을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

<sup>⑦</sup> 학술적 논의에서는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성취가 가능한 고차원적인 인간 완성의 징표로 ‘에우다이모니아적 행복감’, 즉 주관적 행복감과 구별되는 객관적 행복감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히 즐거운 삶에 머물러 있는 소비의 삶이 아닌 덕성과 성취를 진행하는 삶으로 행복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다. 본 글에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논증을 제시하기 위하여 데이터 사용을 염두에 두어 행복을 “전반적인 삶을 고려할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CGSS 문항 중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연관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은 10년 동안 지속적인 행복감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2008년 올림픽 축제를 기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세와 함께 행복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JGSS와 KGSS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일본과 한국의 행복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주관적 행복감은 2007년부터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몰아닥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적으로 조금 큰 하락을 보였다. 일본은 2003년에 저점을 보이다가 그 후 약간의 상승이 있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하락 폭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행복감 결과보다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3-1> 한·중·일 연도별 행복감 변화 추이(10점 척도)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는 일본 3,7304\$(세계 25위), 한국 2,7633(세계 29위) 대비 1인당 GDP가 2016년 IMF 데이터 기준 8,261\$(세계 75위), 즉 1만 달러 이하인 중국은 2003년부터 10년간 꾸준히 큰 상승 폭을 보였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삼국의 평균 행복도는 중국 7.53, 일본 7.36, 한국 6.93 순(10점 척도 기준)으로 나열할 수 있었다.

비슷한 고속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국가지만 위 경향 추이로부터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일본과 한국,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움직이는 중국 사회사이 국가별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행복감 증대효과가 다름을 감지할 수 있다. 허쉬의 물질재와 위치재 논의에 근거하여 1인당 GDP가 1만 달러 조금 미만인 발전 도상 국가인 중국은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행복도 추세를 볼 때 아직도 성장이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과 아울러 공동분배에서 효율분배로의 제도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소득효과로 상대적 박탈감보다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예상한다. 이스털린의 역설에 관한 진일보 검증으로 4장의 구체적 다수준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의 소득과 행복도 사이의 흐름을 시사하고자 한다.

## 2. 독립변수: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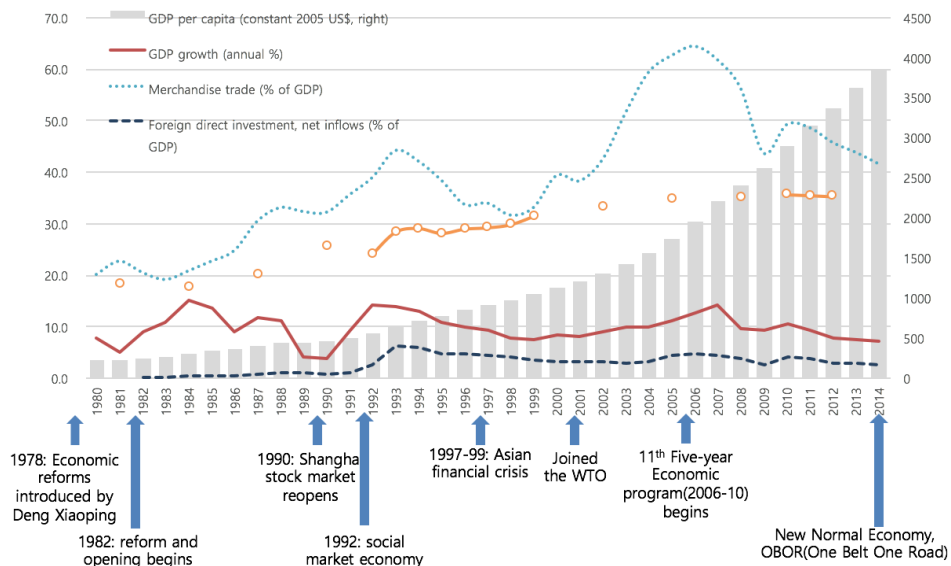
독립변수는 CGSS A62번 질문의 “귀댁의 지난해 귀댁의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얼마입니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가구소득의 분포가 정규성을 벗어나는 것을 감안해 로그 변환하였으며 ‘비해당-71 사례’ ‘모른다-896 사례’, ‘대답 거부-543 사례’ 등 총 1510 사례 대답은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기존 표본수 보존과 오차를 줄이는 원칙을 기준으로 연평균 가구 총소득이 0원인 57가구 소득을 1원으로 리코딩하고 연평균 가구 총소득이 100만 위수가 넘는다고 응답한 두 가구의 연평균 가구 총소득을 1000만 위안으로 조작화 하였다.

구체적 분석에서의 이해 편리를 위하여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중국 경제성장 상황을 간단한 그림을 통하여 서술한다. 중국은 1978년부터 2014년까지 개혁개방 36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실질 GDP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2.4%에서 2015년 10.43%로 높아졌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같은 시기 세계의 평균성장률보다 6% 이상 높은 성장률로서, 일본과 한국 고도성장기에 비견되는 고속성장이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은 단계적, 점진적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구체적 개혁은 대다수 인민대중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촌경제의 활성화에서 시작하여, 도시 부문의 기업운영 메커니즘 개혁은 점-선-면으로 확대 추진되었으며 개방은 경제특구 중심 외자도입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무역 시장에서의 글로벌 시민권을 획득하여 전면적이고 완전한 시장개방경제체제로 개편되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실상이다.

〈그림3-1〉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 변화 추이 1<sup>⑧</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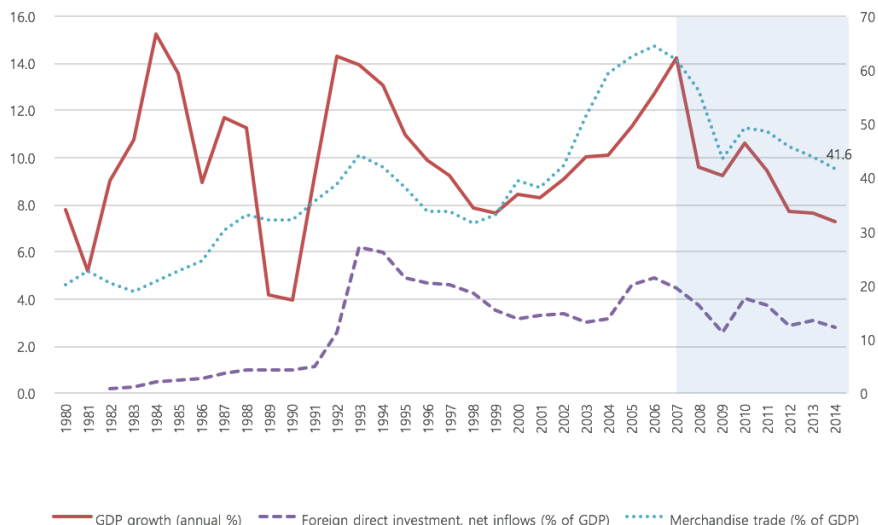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부터 중국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새로운 안정 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의 중국식 표현으로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경제를 주창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중고속성장 경제정책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과거와 같은

⑧ Source: World Bank Database, extracted fro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ccessed April 1, 2016, GINI, from PovNet.

고도성장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으며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는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뉴노멀은 단순한 고성장 양상과는 다른 시대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한 현상이다.

2015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6.9%를 기록하면서 2010년부터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세계 시장 수요 축소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보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인 신창타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전 세계 수출입 비중 또한 하락하고 있다.

〈그림3-2〉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 변화 추이 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이 지난 지금은 저성장, 고실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경제는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은 시진핑의 ‘무조건적인 개혁개방은 좋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개혁개방 2.0시대로 접어들며 10% 내외의 고속성장이 아닌 6~7% 경제성장을 이루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정책을 펼쳐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혁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중국 1인당 GDP는 WTO 가입 이후 2003년부터 지속적인 10% 내외 고속성장을 보이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5년은 6.9% 성장률을 기록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에 관한 인식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환경은 사회적 여건, 즉 정부 주도의 국가정책에 의해 형성된 사회시스템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위와 같은 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 환경요인은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일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암시해 주는데 실제로 전반적인 개인의 객관적 소득수준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결과 여부는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자.

### 3. 조절변수

지역수준의 조절변수는 28개의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단위로 구성한다. 지역 단위가 너무 넓으면 관찰이 가능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준거집단으로의 지역주민의 의미가 퇴색하지만 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효과를 타당하게 구성하기 위해 성(省) 단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성(省) 단위의 사례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성(省) 단위별로 제일 작은 사례 수는 98개이고 제일 큰 사례 수는 537개가 포함되었다.

지역의 평균적인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중국종합사회조사(CGSS) 2013년의 개인가구소득 자료를 활용해 지역의 평균가구소득 변수를 생성하였다. 성(省) 단위별로 구한 평균값을 그 지역의 평균가구소득 수준으로 전제한다. 위계선형모형에서는 표집된 자료를 활용해 상위수준의 자료를 구성할 경우, 표집된 사례들이 상위수준의 대표가 된다고 전제된다(이희연·노승철, 2013).

준거집단과 사회비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 평균가구소득과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 변수가 모형에 투입한다. 이것은 행복에 대한 로그가구소득 효과를 지역평균소득 수준이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수준 간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를 보인다면, 그것은 행복에 대한 개인의 로그가구소득 효과는 지역평균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진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수준 간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개인의 로그가구소득 효과가 지역평균균등화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의미가 된다.

다음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거시적 근대화 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관련된 지역생태학적 변수인 인구증가율과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 변수가 분석에 투입된다. 지역의 인구증가율 생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중국국가통계청 2013, 2014년 통계연감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2014년 인구에서 2013년 인구를 뺀 값을 2013년 인구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한 최종값으로 산출하였다.

압축적 경제성장이라는 큰 배경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점진적 발전과정을 겪은 서구 사회와 달리 거버넌스의 차별적 개방, 개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산업화 진척과 연동되어 지역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인프라 건설, 환경오염 정도, 정부의 효율성 등 제반 요인의 차이를 가져와 지역의 격차를 확대함과 아울러 노동인구의 이동을 동반하여 기술체계와 고용체계 변화 또한 촉진하였다. 만약 수준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를 보인다면, 그것은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일수록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이 행복에 대한 양의 효과는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같은 단위의 개인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인구증가율이 높은 성(省)급 지역일수록 행복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 4. 통제변수

##### 가. 개인수준

통제변수로는 개인수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인 성별, 연령, 연령  
제공, 혼인 상태, 1인가구 여부, 당원 여부, 교육수준 변수와 건강, 종교,  
취업 여부, 호적 유형, 사회적 관계 등 변수를 포함한다.

성별 자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연구(Hayo and Seifert, 2003)와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Haller and Hadler, 2006; 강성진, 2010)도 있으며, 소득효과는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데, 그 효과는 여성에게는 유의미하지 않고 남성에게서 유의미 하였다는 연구들이 있다 (Adelmann, 1987). 본 글에서는 개인수준 변수 중 성별은 여성을 0으로 하여 남성을 1로 코딩하여 설정하였다.

연령은 생애주기 및 세대 요인, 기간 효과 등이 결합하여 개인 정서나 감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이 효과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U자 형태인 비선형적인 관계로, 일정 기간의 연령이 지나면 오히려 행복이 약간 증가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강성진, 2010; 조승헌, 2006; Blanchflower and Oswald, 2008; Rampichini and D'anrea, 1997).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연령변수와 연령제곱항변수 모드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혼인상황은 법적으로의 혼인 등기 여부보다 동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생활동반자가 없는 사람을 0, 생활동반자가 있는 사람은 1로 분류하여 더미화 하였다. 아울러 개인이 맺고 있는 가족관계의 형태도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가족은 친밀한 사회적 관계로서 흔히 사회와 완충작용을 하는 정서적 공동체로 이해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여부를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1인가구를 1, 1인가구가 아닌 사람을 0으로 분류하여 통제하였다. 기존연구에서 1인가구는 개인의 정서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한준 외, 2014).



교육수준은 전문대 이하를 0, 대학교 및 그 이상을 1로 코딩하였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는데(Hagerty, 2000; Easterlin, 2001), 이것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 즉, 직업과의 관련에 의해 해석된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경제활동상태는 임금생활자가 자영업자나 가족업 종사자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Graham and Pettinato, 2002; Camfield, Choudhury and Devine, 2009), 실업자들의 주관적 안녕이 다른 경제활동 상태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좋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어 (Rampichini and D'andrea 1997; Haller and Hadler, 2006) 미취업을 1,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특히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건강상태가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신체적 자유로움의 효과라고 해석된다(Haller and Hadler, 2006). 본 글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등 3점 척도로 반영하였다. 이외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보고된바 있으며(조승헌, 2006; Rampichini and D'andrea, 1997) 종교는 개인의 영적, 정서적 안녕을 제공하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사회적 자원의 역할도 겸하여 사회적 지지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종교 유무 또한 이분 변수로 만들어 모형에 추가하였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0,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1로 설정하였다.

당원 여부는 무당파 인원을 1, 공산당을 포함한 기타 당파에 가입한 사람들을 0으로 설정하였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더 낮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Ishida et al. 2014; Fernandez and Kulik, 1981), 글에서는 비농업호적(도시호적, 城镇户口)을 1, 농업호적을 0으로 더미화 하였다.

통제변수에 선행연구에서 검토, 검증된 개인수준 사회인구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개인수준의 사회관계를 나타내는 타인과의 사교활동 빈도, 인터넷 사용 등 변수도 포함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행복감 구성요인도 매우 중요하지만 구조 속의 개인으로서 상호작용하는 다른 주체 또한 개인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필자는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성(The social) 강조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시각으로 행복도 이해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관계적 특성을 보이는 변인들도 통제변수에 투입하였다.

대체로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이 더 삶에 만족하거나 행복하다고 알려져 있는데(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김명소·김혜원·임지영·한영석, 2003; Phillips, 1967) 본고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을 1,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였으며 인터넷 사용 또한 외부와의 교류로 사회 비교를 촉진하는 가능성이 있기에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1,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여 데이터를 산출하고 무응답은 결측치 처리하여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행동과 구조의 관계 방식과 정도를 ‘시간’속에서 과정의 문제’로 이해함을 고려하여 3년전 자신과 비교했을 때 사회경제지위가 상승한 행위자를 1,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였으며 같은 연령대 사람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1,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함으로써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 나. 지역수준

지역수준에서는 지역의 평균 학력을<sup>⑨</sup>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는데 지역 평균소득의 영향이 평균 학력의 영향일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수준의 통제변수들로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등도 투입하였다. 인구밀도와 인구증가율은<sup>⑩</sup> 일면 사회적 갈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에 사용하였으며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경쟁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기에(송복, 1997)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관찰 가능한 지역주민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사회 비교의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이보다도 국가정책전략으로 중국에서 진행된 차별적 개혁개방이 산업화 진척과 연동되어 지역격차를 가져와 노동인구의 이동현상을 초래하였는데 거시적 근대와 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연관된 지역생태학적 변수로 인구증가율을 투입하였음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외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세와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값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정부 의존도를 의미하는데(이재무, 2014)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상위 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또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수를 가늠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재정상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변인의 구성과 측정에 대해 정리하면 <표1-1>과 같고 통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tata 14.1을 사용하였다. 변수의 구체적 구성은 다음 <표 1-1>과 같다.

---

⑨ 지역의 평균학력을 구하기 위해 개인의 학력을 연속변수로 변환하였다. 연속변수로서의 변환기 준은 무학을 0, 사설 교육기관 경험이 있는지를 3, 초등학교 졸업은 6, 중학교 졸업은 9, 고등학교 졸업은 12, 전문대 졸업은 15, 대학교 졸업은 16, 석사과정 및 그 이상 19로 변환하였다. 이 값을 성(省) 별로 합산하고 구성원의 수로 나눈 값이 지역의 평균학력값이다.

⑩ 한보영과 강정환(2015)의 연구에서는 인구밀도의 경우, 분포 형태가 0에서 멀리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1,00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그 논리를 수용해 인구밀도의 경우, 1,00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표1-1〉변수 구성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종속변수	행복 정도	5점 척도 1) 전적으로 불행하다 5) 전적으로 행복하다
독립변수 (개인)	로그가구소득(연소득)	= LN (연가구소득) (로그가구소득 평균인 10.42로 센터링)
조절변수 (개인)	성별	1 남성 0 여성
	연령	응답자의 연령 (평균 연령인 50세로 센터링)
	연령제공	응답자의 연령 제공 (평균 연령인 50세로 센터링)
	혼인상태 <sup>⑩</sup>	1 생활 동반자 있음 0 생활 동반자 없음
	당원여부	1 당파 인원 0 무당파 인원
	종교유무	1 종교 있음 0 종교 없음
	주관적 건강평가	3점 척도(2로 센터링) 1) 건강하지 않다 2) 보통 3) 건강하다
	교육수준	1 전문대 이상 0 고등학교 이하
	호적유형	1 비농업호적 0 농업호적
	미취업여부	1 미취업 0 나머지
	1인가구여부	1 일인가구 0 일인가구가 아님
	사회모임 참여정도	1 적극적으로 사회모임에 참여한다 0 적극적으로 사회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인터넷사용	1 사용 0 비사용

⑩ 혼인상황에서 본 연구는 법적으로의 혼인 등기 여부 보다 동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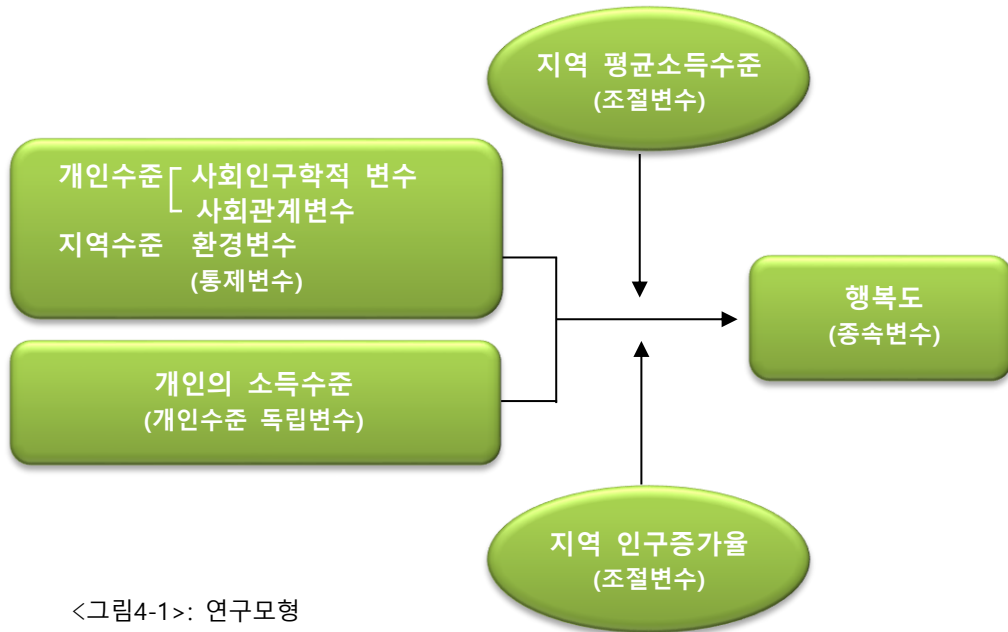
	같은 연령대와의 사회경제지위 비교	1 높다 0 나머지
	3년전 자신과의 사회경제지위 비교	1 상승 0 나머지
조절변수 (지역)	지역평균가구소득	성(省)별 사례들의 평균가구소득
	지역평균교육수준	연속변수로 변환한 사례들의 학력 평균
	인구밀도/1000	인구밀도(명/ $km^2$ )를 1000으로 나눈 값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 (당해년도 인구 <sup>⑫</sup> -전년도 인구)/전년도 인구×100
	재정자립도	성(省) 단위 별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100

\*지역통제변수들 중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산업구성비, 재정자립도 등은 중국국가통계청 성(省) 단위의 통계지표를 인용하였다.

⑫ 당해년도 인구는 소속 지역 년말 상주인구(年末常住人口)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제 4 절 연구 모형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과 내용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4-1>: 연구모형

<그림 7>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 도식화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소득수준의 증가는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을 가져다주는지? 둘째, 소득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 분산이 존재하는지? 셋째, 소득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지역평균소득과 인구증가율 수준에 따라 다르게 조절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에 초점을 맞춰 지역평균가구소득, 지역인구증가율과 개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복감에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제 4 장 분석결과

###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 1. 개인수준변수들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서 사용되는 개인수준 변수들에 관한 기술통계 값을 연속형·순서형 변수와 명목형 변수로 나누어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구체적 결과는 아래 <표2-1>과 <표3-1>과 같다. 평균적인 행복수준은 3.769로 ‘보통’인 3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평균학력은 약 8.80년으로, 중등학교 졸업 정도인, 의무교육수준 9년과 가까운 값이다.

<표2-1> 연속형·순서형 개인수준변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행복도	9,239	3.769	0.862	1	5
연평균가구소득	9,239	58,262.68	1688.588	1	10000000
가구소득(로그)	9,239	10.417	0.014	0.00	16.12
연령	9,239	49.878	0.166	18	98
연령제곱	9,239	2,741.648	17.186	324	9604
주관적 건강평가	9,239	2.488	0.008	1	3
교육수준	9,239	8.803	0.048	0	19

〈표2-2〉 명목형 개인수준변수 기술통계

변수	범주	빈도	비율 (%)	누적 비율	N
성별	0-여자	4,539	49.13	49.13	9,239
	1-남자	4,700	50.87	100.00	
종교유무	0-없음	8,278	89.60	89.60	9,239
	1-있음	961	10.40	100.00	
혼인상태	0-생활 동반자 없음	1,741	18.84	18.84	9,239
	1-생활 동반자 있음	7,498	81.16	100.00	
당원여부	0-무당파 인원	7,888	85.38	85.38	9,239
	1-당파 인원	1,351	14.62	100.00	
미취업여부	0-미취업	3,347	36.23	36.23	9,239
	1-나머지	5,892	63.77	100.00	
일인가구 여부	0-다인가구	8,331	90.17	90.17	9,239
	1-일인가구	908	9.83	100.00	
호적유형	0-농업호적	5,482	59.34	59.34	9,239
	1-비농업호적(도시호적)	3,757	40.66	100.00	
교육수준	0-고등학교 이하	7,766	84.06	84.06	9,239
	1-전문대 이상	1,473	15.94	100.00	
인터넷 사용	0-사용 안함	5,537	59.93	59.93	9,239
	1-사용	3,702	40.07	100.00	
사회모임 참여정도	0-나머지	6,692	72.43	72.43	9,239
	1-적극적으로 참여	2,547	27.57	100.00	
동연령 비교 사회경제지위	0-나머지	8,787	95.11	95.11	9,239
	1-높다	452	4.89	100.00	
3년전 비교 사회경제지위	0-나머지	5,434	58.82	58.82	9,239
	1-상승	3,805	41.18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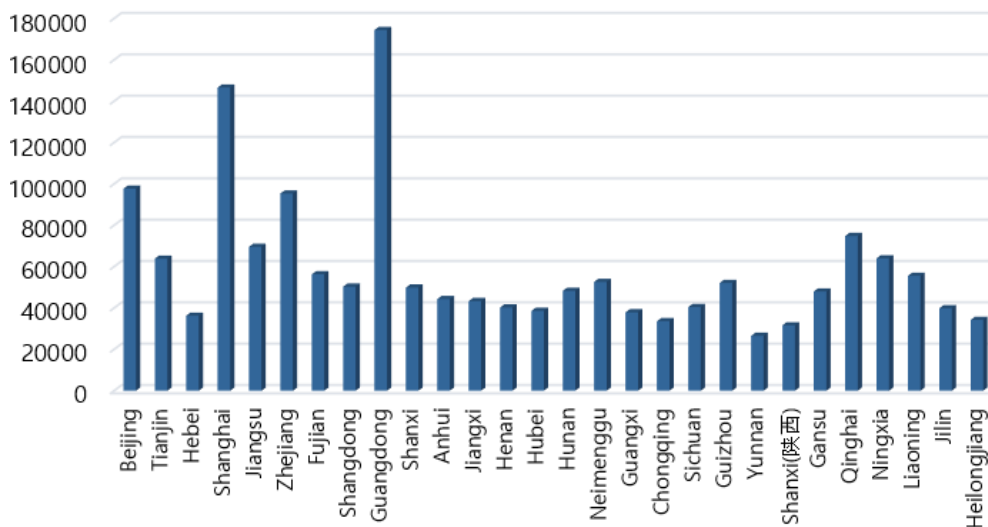
## 2. 지역수준변수들

성(省) 단위의 지역별 평균가구소득수준은 약 58,961 위안이었으며 지역평균가구소득의 최소값은 약 26,486위안, 최대값은 181,498위안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약 7배 가까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 평균가구소득값은 정규분포하였다. 지역별 사례 수는 최소값이 98, 최대값이 537이었고 평균적으로 330개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분포하였으며 지역평균학력은 약 8.63년으로 의무교육수준인 중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수준을 보였다. 2013년 기준 인구밀도(/1000)는 평균적으로 2.843명/ $km^2$ 이었으며, 2013년 기준 인구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약 0.70이었고 재정자립도는 2013년 기준 약 평균 54.34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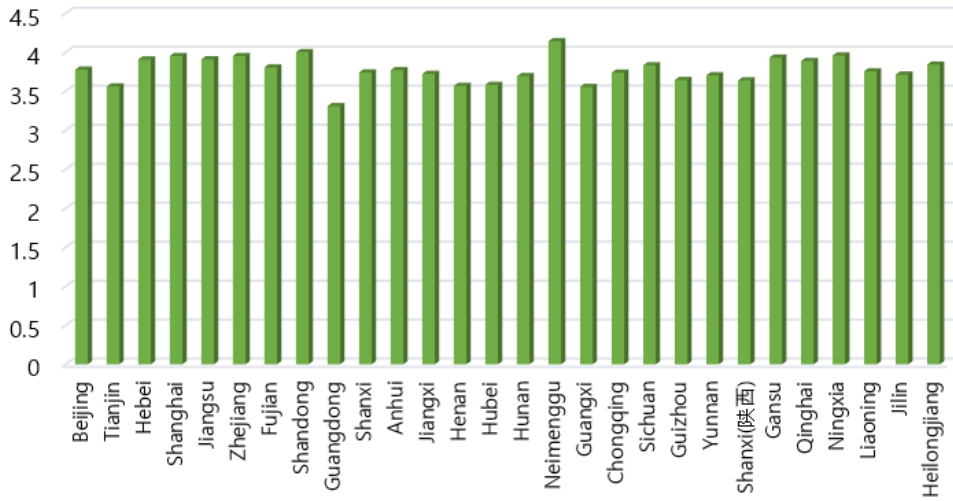
〈표 2-3〉 연속형·순서형 지역수준변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역평균가구소득	28	58,955.82	6,602.547	26,485.83	181,498.2
지역평균학력	28	8.626	0.326	6.224	12.450
인구밀도/1000	28	2.843	0.225	1.06	5.54
인구증가율	28	0.698	0.156	0.02	4.18
재정자립도	28	54.342	3.690	18.229	90.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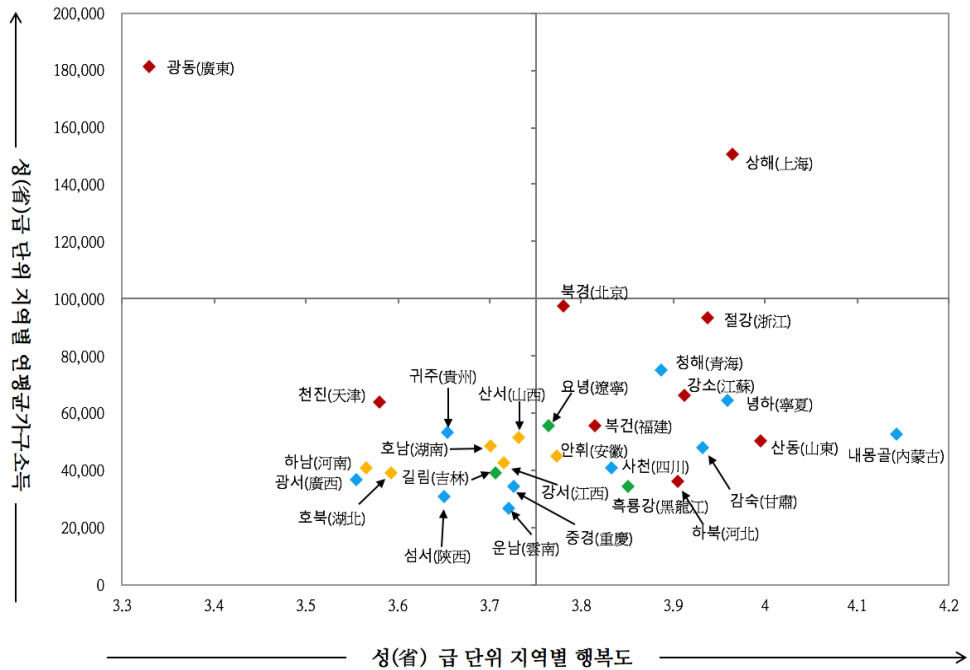
〈그림5-1〉 성(省)급 단위 지역별 평균 가구소득



〈그림5-2〉 성(省)급 단위 지역별 평균 행복도



〈그림 5-3〉 성(省)급 단위 지역별 연평균가구소득과 (X) 평균 행복도(Y) ⑬



⑬ 지역별 연평균가구소득과 평균행복도는 CGSS2013의 개인수준의 가구소득과 평균행복도를 기준으로 변환하였다.

## 제 2 절 다층분석 결과

### 1. 행복감에 대한 지역효과의 크기

다층분석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의 변량이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독립변수 없이 실시하는 무조건 모형으로 수식은 아래와 같다

$$y_{ij} = \gamma_{00} + u_{0j} + e_{ij}$$

〈표3-1〉의 모형1에 따르면 기초모형(null model)의 분석 결과, 지역수준의 변량인  $u_{0j}$ 는 유의도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p < 0.001$ ). 즉, 5점 척도로 측정된 행복감의 변량을 성(省)급 지역수준과 개인수준으로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 성(省)급 단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행복감의 집단변량을 행복감의 총분산으로 나눈 집단 내 상관값인 ICC(intra class correlation)은 약 0.034로 집단 변량이 행복감을 설명하는 비율 값이 크지는 않다.

$$ICC = \frac{\sigma_a^2}{\sigma_a^2 + \sigma_e^2} = \frac{0.02354}{0.02354 + 0.66549} \approx 0.034$$

### 2. 행복감에 대한 개인수준 통제변수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에 선행연구에서 검토, 검증된 개인수준의 사회 인구학적 통제변수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사교활동빈도, 인터넷 사용여부 등 사회관계 변수와 환경적 요인 변수가 포함되었다. 사회자본이나 통합 등 사람들 간 관계, 자율성 정도, 시간에 따른 사회경제적지위 변화 등 상황적인 환경요인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최근 행복도 연구들에서도 제시되어 다른 요인들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었다. 결국, 구조 속에 배태된 행위자로 사회적 관계,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환경요인 변화 등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통제변수에 투입하였다.

〈표3-1〉행복감에 대한 다수준(Multilevel Analysis) 분석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로그가구소득	0.10***	0.01	0.08***	0.01	0.07***	0.01	0.07***	0.01
개인수준 변수: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별(남성)			-0.09***	0.02	-0.08***	0.02	-0.08***	0.02
연령			-0.03***	0.00	-0.02***	0.00	-0.02***	0.00
연령제곱			0.00***	0.00	0.00***	0.00	0.00***	0.00
혼인상태			0.21***	0.03	0.20***	0.03	0.20***	0.03
당월여부(당파)			0.10***	0.02	0.08**	0.03	0.08**	0.03
종교유무			0.11**	0.04	0.10**	0.03	0.10**	0.03
주관적 건강평가			0.22***	0.01	0.20***	0.01	0.20***	0.01
교육수준			0.06*	0.03	0.04	0.03	0.04	0.03
호적유형(도시)			-0.05*	0.02	-0.04*	0.02	-0.04+	0.02
취업여부(미취업)			-0.02	0.03	-0.03	0.03	-0.03	0.03
1인가구여부			-0.07+	0.04	-0.07+	0.04	-0.07+	0.04
개인수준 변수: 사회관계적 요인								
사회모임참여정도					0.11***	0.02	0.11***	0.02
인터넷 사용여부					0.09***	0.02	0.09***	0.02
개인수준 변수: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지위 비교)								
동연령대와의 비교					0.22***	0.02	0.22***	0.02
3년전 자신과 비교					0.15***	0.04	0.15***	0.04
지역수준 변수: 환경적 요인								
지역평균소득							-0.00	0.00
지역평균교육수준							0.00	0.02
인구밀도							-0.04	0.03
인구증가율							-0.04+	0.02
지방자립도							-0.00	0.00
상수	3.77***	0.03	3.65***	0.04	3.50***	0.04	3.77***	0.03
무선효과(u0)	0.025***		0.023***		0.019***		0.015***	
ICC	0.0367		0.0361		0.0315		0.0252	
N	9237		9226		9222		9217	

\*\*\* p<0.001, \*\* p<0.01, \* p<0.05, +p<0.1

가장 먼저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집단 효과를 알아보는 무조건모형을 수행한 이후 28개 성급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분산의 양을 확인한 뒤 개인수준의 설명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이 있는지 조건모형(conditional 모형)을 통해 검증한다.

개인수준 통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전 먼저 독립변수인 가구소득이 0.000 미만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개인로그가구소득의 증가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제변수인 개인수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효과를 검증한 모형2를 관찰하면 독립변수인 로그가구소득은 여전히 0.000 미만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로그가구소득이 1 단위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0.08 단위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기본모형1의 가구소득계수 0.10보다 감소한 값으로 개인 수준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들이 다양하게 추가되면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개인수준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소득수준은 여전히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동반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소속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중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건강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고 전문대 이상인 경우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보다, 다인가구가 1인가구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여부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연령은 행복에 대해 곡선효과를 보였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농업호적인 경우보다 비농업호적인 경우가 행복수준이 더 낮고 1인가구 여부와 호적유형, 교육수준은 다른 변수에 비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

앞서 살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 개인의 사회관계적 요인과 환경요인 변수들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가로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3을 시행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만 투입하였을 때 모형2의 ICC 값은 3.61%이었으나 사회관계와 개인수준 환경적 요인

을 반영하는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난 이후, 모형3의 ICC 값은 3.15%로 변하였다. 이는 모형2의 ICC 값인 3.61%에서 약 12.74% 가량 줄어든 수치이다.

개인수준의 사회관계적 요인 변수와 환경적 요인 변수들은 행복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같은 연령대 사람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전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P<0.001$ ). 그러나 통제변수를 추가로 더 투입한 모형3에서 교육수준은 행복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3. 행복감에 대한 지역수준 통제변수의 영향

모형4에서는 기초모형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28개 성(省)급 단위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어떤 지역 요인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가구소득은 0.000 미만의 수준에서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지역수준 변수를 통제하여도 소득수준은 일관되게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의 평균소득항은 개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며 반대로 지역평균소득과 로그가구소득의 수준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즉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가 지역평균소득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됨을 보이는 것으로 가구소득의 행복에 대한 영향은 지역 평균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입된 지역통제변수 중에서 관심 있게 살펴본 변수는 거시적 근대화 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관련된 지역생태학적 요인인 인구증가율이다.

결과에 따르면 지역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 응답자들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P < 0.1$ ) 뒤에서 추가로 분석될 모형, 즉 지역 인구증가율과 개인 로그가구소득의 수준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졌다( $P < 0.001$ ). 즉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가 지역 인구증가율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됨을 보이는 것으로 가구소득의 행복에 대한 영향은 지역 인구증가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 지역의 재정자립도, 지역평균교육수준, 인구밀도 등 다른 변수들은 행복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지역통제변수를 추가로 더 투입한 이후 호적유형 변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졌고 교육수준은 모형3이후와 마찬가지로 더이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수준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3과 비교했을 때 모형3의 ICC 값은 2.52%로, 0.000 미만 미만 유의수준에서 지역에 따른 분산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3의 ICC 값인 3.15%에서 20% 가량이 더욱 줄어든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지역수준 변수를 고려한 후에는 지역수준의 분산이 일정 부분 설명되어, 개인수준 변수를 고정시킨 이후에 비해 ICC 값이 대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로그가구소득에 대한 지역평균소득의 조절효과

개인은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가 아닌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기에 단순한 개인효과뿐만 아니라 행위관계망 속의 행위자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 영향을 받음을 전제할 때 Clark et al(2008)이 주장한 것처럼 개인이 행복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절대소득(absolute income)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감하긴 쉽다.

한국일 경우 준거집단의 소득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경우 준거집단 소득의 양을 독립적으로 모형에 포함시켜 그 효과를 보거나 개인의 가구 소득과 이웃의 평균소득 간 차이를 상대소득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지만(Fernandez and Kulik, 1981; 강성진, 2010; 이소라·홍기석, 2012; 임보영·마강래, 2015; 류지아, 2016) 중국사회 연구에 제한하였을 때, 지역의 평균소득 효과 자체를 상대소득의 효과로 보고 다층분석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한 글은 전무했다.

본 글에서는 개인의 로그가구소득과 그 효과를 조절하는 성(省)급 단위 지역주민들의 평균가구소득의 수준간 상호작용을 다층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려 했으며 그 구체적 무선절편모형을 방정식으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Level 1: } y_{ij} = \beta_{0j} + \beta_{1j} \times (\text{로그가구소득} - \text{전체평균}) + \sum x_{ij} + e_{ij}$$

$$\text{Level 2: } \beta_{0j} = \gamma_{00} + u_{0j}$$

$$\beta_{1j} = \gamma_{10} + \gamma_{11} \times (\text{지역평균가구소득})$$

주요 통제변수들과 성(省)급 단위의 지역평균소득, 로그가구소득의 수준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표4-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로그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짐과 아울러 지역평균소득과 로그가구소득의 수준간 상호작용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개인소득수준의 증가는 곧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며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가 지역주민의 평균소득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되는 것으로 보였다.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이 행복에 대한 양의 효과는 지역평균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되어 가구소득효과가 준거집단인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단위의 개인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역의 평균소득수준이 높으면 행복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표4-1〉 지역 평균가구소득 및 인구증가율과 로그가구소득의 상호작용분석

변수명	모형5		모형6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로그가구소득(A)	0.07***	0.01	0.07***	0.01
개인수준 변수: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별(남성)	-0.08***	0.02	-0.08***	0.02
연령	-0.02***	0.00	-0.02***	0.00
연령제곱	0.00***	0.00	0.00***	0.00
혼인상태	0.20***	0.03	0.20***	0.03
당원여부(당파인원)	0.08**	0.03	0.08**	0.03
종교유무	0.10**	0.03	0.10**	0.03
주관적 건강평가	0.20***	0.01	0.20***	0.01
교육수준	0.04	0.03	0.04	0.03
호적유형(도시)	-0.04+	0.02	-0.04+	0.02
취업여부(미취업)	-0.03	0.03	-0.03	0.03
1인가구여부	-0.07+	0.04	-0.07+	0.04
개인수준 변수: 사회관계적 요인				
사회모임참여 정도	0.11***	0.02	0.11***	0.02
인터넷 사용여부	0.09***	0.02	0.09**	0.02
개인수준 변수: 환경적 요인				
같은 연령대와의 사회경제적지위 비교	0.22***	0.02	0.22***	0.02
3년전 자신과의 사회경제적지위 비교	0.15***	0.04	0.15**	0.04
지역수준 환경요인-지역수준 변수				
지역평균소득(B)	-0.00	0.00	-0.00**	0.00
지역평균교육수준	0.00	0.02	0.00	0.02
인구밀도	-0.04	0.03	-0.04	0.02
인구증가율(C)	-0.04+	0.02	-0.05*	0.02
재정자립도	-0.00	0.00	-0.00	0.00
(A) × (B)	0.00+	0.00		
(A) × (C)			0.02**	0.01
상수	3.77***	0.03		
무선효과(u0)	0.016***		0.015***	
ICC	0.0264		0.0254	
N	9216		9216	

\*\*\* p<0.001, \*\* p<0.01, \* p<0.05, +p<0.1

1978년부터 2014년까지 개혁개방 36년간 연평균 10% 가까이의 실질 GDP 성장을 달성으로 중국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2.4%에서 2015년 10.43%로 높아졌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같은 시기 세계의 평균성장률보다 6% 이상 높은 성장률로서, 일본과 한국 고도성장기에 비견되는 고속성장이다. 이런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 환경요인으로 개인의 가구소득효과가 준거집단인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미래의 경제성장 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 박탈감보다 유효하게 나타나 동기부여로 작동하여 상대소득의 효과보다도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작용하고 있어 소득 격차는 노력에 대한 보상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향이 보다 크다. 한편 1인당 GDP가 1만 달러 조금 미만인 발전 도상 국가로 준거집단과의 비교보다도 절대적 소득의 증가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 있으며 이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개인화 경향보다 중용(中庸)문화의 문화 환경적 요인도 내재되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 로그가구소득에 대한 지역 인구증가율의 조절효과

압축적 경제성장이라는 큰 배경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점진적 발전과정을 겪은 서구 사회와 달리 거버넌스의 차별적 개방, 개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산업화 진척과 연동되어 지역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인프라 건설, 환경오염 정도, 정부의 효율성 등 제반 요인의 차이를 가져와 지역의 격차를 확대함과 아울러 노동인구의 이동을 동반하여 기술체계와 고용체계 변화 또한 촉진하였다.

지역 격차에 따른 소득수준과 중국인의 행복감 사이 관계 변화에 영향 주는, 기제에 대한 세부적 토론을 진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차이를 빚어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거시적 근대화

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연관된 지역생태학적 변수인 지역인구증가율과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변수가 분석에 투입된다. 이로써 행복에 대한 로그가구소득의 영향을 지역 인구증가율이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며 그 구체적 무선절편모델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text{Level 1: } y_{ij} = \beta_{0j} + \beta_{1j} \times (\text{로그가구소득} - \text{전체평균}) + \sum x_{ij} + e_{ij}$$

$$\text{Level 2: } \beta_{0j} = \gamma_{00} + u_{0j}$$

$$\beta_{1j} = \gamma_{10} + \gamma_{11} \times (\text{지역인구증가율})$$

주요 통제변수들과 성(省)급 단위의 지역인구증가율 변수,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표5-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독립변수인 로그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져 개인소득수준의 증가는 곧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짐과 아울러 지역인구증가율과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가 지역 인구증가율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되어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일수록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이 행복에 대한 양의 효과는 증가하며 같은 단위의 개인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인구증가율이 높은 성(省)급 지역일수록 행복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시장경제화의 속도가 빠르고 일찍부터 개혁개방이 큰 폭으로 진행되어 정책적 지원으로 산업화 진척이 빨라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같은 제도적 요인의 규범화로 노동인구의 이동이 활발하고 사회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개인소득이 행복에 주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 제 5장 결 론

지금까지 성(省) 단위 주민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한 국가 내부를 대상으로 중국의 행복에 대한 소득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차이를 빚어내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차별적인 개혁개방으로 각기 다른 근대화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 차이 속에서 개인소득이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여 위계선형모형의 수준 간 상호작용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수준 분석방법은 각기 다른 수준의 변수들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며 잔차의 독립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Raudenbush and Bryk, 2002; 이희연·노승철, 2013) 상위수준의 변수에 관계된 사례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수준의 변량과 집단수준의 변량으로 나누어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변량의 변화를 분석해주며 아울러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볼 수 있어 분석에 용의하다.

분석결과는 독립변수인 로그가구소득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고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 환경요인으로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편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 중국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인민소득의 향상은 바로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져 서로 다른 산업화 속도에 따른 차별적 경제성장으로 지역의 복합적인 사회 양상에도 여전히 독립변수인 개인로그가구소득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 효과로 준거집단과의 사회비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의 가구소득에 대해 그 효과를 조절하는 집단수준변수인 지역평균소득 변수와의 수준 간 상호작용 분석을 통하여 중국은 개인의 가구소득 효과가 준거집단인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미래의

경제성장 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 박탈감보다 유효하게 나타나는 터널효과(tunnel effect)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단위의 개인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역의 평균소득수준이 높으면 행복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거시적 근대화 환경을 반영하는, 도시성과 관련된 지역생태학적 변수인 인구증가율과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의 수준 간 상호작용 분석을 통하여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일수록 개인의 로그가구소득이 행복에 대한 양의 효과는 증가하며 같은 단위의 개인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인구증가율이 높은 성(省)급 지역일수록 행복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시장경제화의 속도가 빠르고 일찍부터 개혁개방이 큰 폭으로 진행되어 정책적 지원으로 산업화 진척이 빨라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같은 제도적 요인의 규범화로 노동인구의 이동이 활발하고 사회 인프라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개인소득이 행복에 주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상기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중국에서의 개인의 소득 증가는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을 가져오고 있으며 개인소득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이 다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지역평균소득수준과 인구증가율 정도에 따라 차별적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다수준분석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상기 분석은 중국인의 행복을 둘러싼 기본요소와 주요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과 행복, 삶의 질에 존재하는 쟁점을 전환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과제로 간주하는 맥락에서 성장의 변곡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시 삶의 질을 둘러싼 중국의 사회구조적 환경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해왔고 변화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중국 국내에도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두루 이루어져 왔으나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행복의 감소를

안아오는지 의견이 다분하며 대부분 분석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고 소득 이외 성별, 혼인 등과 같은 개별 변수 분석에 국한된 다중회귀분석 경우가 많았다. 2013년 최신 CGSS 자료를 이용한 전국 범위의 행복감 다수준양적분석은 그 자체로 희소 가치를 가지며, 특정한 지역이 아닌 중국 사회 전반의 행복감 변화 추세와 그에 영향을 주는 기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 토론은 사람들이 전환기 중국의 소득과 행복도 사이 관계를 보다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여 사회 전반의 변화과정을 요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시사된다.

결국, 본 논문은 중층성과 복잡성이 혼재한, 산업화와 탈산업화가 공존하는 중국사회 맥락에서 한 국가 내 서로 다른 지역에 포커스를 두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매커니즘을 투영하는데 긍정적 작용을 하여 서로 다른 경제성장과 시장화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 차이가 개인적 차원의 소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중국사회 맥락에서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글을 통하여 간략히 보여주었다.

## 참고 문헌

### 1. 1차자료

中國綜合社會調查(중국종합사회조사,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2003,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中國國家統計局(중국국가통계청), “2013,2014 통계년감”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7-2012)

일본종합사회조사(Japan General Social Survey), (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8, 2010)

### 2. 단행본 및 논문

#### 가. 중국어

邊燕傑,肖陽. 2014. 中英居民主觀幸福感比較研究[J]. 社會學研究(2): 22-42.

曹大宇. 2009.我國居民收入與幸福感關係的研究[D]. 華中科技大學.

陳剛,李樹. 2012. 政府如何能夠讓人幸福?—政府質量影響居民幸福感的實證研究[J]. 管理世界(8):55-67.

費孝通. 1985. 鄉土中國[M]. 北京:新知三聯書店.

傅紅春. 2008. 滿足與幸福的經濟學[M]. 格致出版社.

官皓. 2010. 收入对幸福感的影响研究:绝对水平和相对地位[J]. 南开经济研究(5):56-70.

郭星華. 2001. 城市居民相對剝奪感的實證研究[J]. 中國人民大學學報(3):71-78.

何立新,潘春陽. 2011. 破解中國的“Esterlin悖論”:收入差距、機會不均與居民幸福感[J]. 管理世界(8):11-22.

- 黃嘉文. 2016. 收入不平等对中国居民幸福感的影响及其机制研究[J]. 社会(2):123-145.
- 李春玲,李實. 2008. 市場競爭還是性別歧視——收入性別差異擴大趨勢及其原因解釋[J]. 社會學研究(02):94-117.
- 李強. 2005. 當前中國社會分層結構變化的新趨勢[J]. 中國社會科學(4):123-136.
- 李強. 2014. 當前我國社會分層結構變化的新趨勢[J]. 江蘇社會科學(6):93-99.
- 李靜, 郭永玉. 2008. 收入與幸福感關係的理論[J]. 心理研究(1):28-34.
- 李實,高霞 . 2015. 居民收入差距的測量及其合理判斷[J]. 統計與決策(10):11-16.
- 劉軍強,熊謀林,蘇陽. 2012. 經濟增長時期的國民幸福感—基於CGSS數據的追蹤研究[J]. 中國社會科學(12):82-102.
- 陸銘,陳釗. 2004. 城市化、城市傾向的經濟政策與城鄉收入差距[J]. 經濟研究(6):50-58.
- 陸益龍. 2008. 戶口還起作用嗎?戶籍制度與社會分層和流動. 中國社會科學(1):149-162.
- 羅楚亮. 2009. 絕對收入、相對收入與主觀幸福感—來自中國城鄉住戶調查數據的經驗分析. 財經研究(11):79-91.
- 婁伶俐. 2009. 主觀幸福感的經濟學理論與實證研究[D]. 復旦大學.
- 任海燕,傅紅春. 2011. 收入與居民幸福感關係的中國驗證—基於絕對收入與相對收入的分析[J]. 南京社會科學(12):15-21.
- 魯元平,王韜. 2011. 收入不平等、社會犯罪與國民幸福感—來自中國的經驗證據[J]. 經濟學(4):1437-1458.
- 閻丙金. 2012. 收入、社會階層認同與主觀幸福感[J]. 統計研究(10):64-72.
- 田國強,楊立巖. 2006. 對“幸福—收入之謎”的壹個解答[J]. 經濟研究(11):4-



15.

王朝明,胡棋智. 2008. 中國收入流動性實證研究—基於多種指標測度[J]. 管理世界(10):30-40.

王海港,李實,劉京軍. 2007. 城鎮居民教育收益率的地區差異及其解釋[J]. 經濟研究(08):73-81.

王鵬. 2011.收入差距對中國居民主觀幸福感的影響分析—基於中國綜合社會調查數據的實證研究[J]. 中國人口科學(3):93-101.

王天夫,崔曉雄. 2010. 行業是如何影響收入的——基於多層線性模型的分析[J]. 中國社會科學(05):165-180.

王曉,孫殿明,李佳. 2009. 對我國居民收入流動性的考察[J]. 中央財經大學學報(9):55-59.

邢占軍. 2005. 主觀幸福感測量研究綜述[M]. 北京:人民出版社. 130-133.

邢占軍. 2011. 我國居民收入與幸福感關係的研究[J]. 社會學研究(01):196-219.

謝舜,魏萬青,周少君. 2012. 宏觀稅負、公共支出結構與個人主觀幸福感—兼論:“政府轉型” [J]. 社會32(6):86-107.

吳菲. 更富裕是否意味著更幸福?基於橫截面時間序列數據的分析(2003—2013)[J]. 社會(04):157-185.

趙奉軍. 2004. 收入與幸福關係的經濟學考察[J]. 財經研究30(5):75-84.

張宛麗. 2000. 中國社會階級階層研究二十年[J]. 社會學研究(1):24-39.

曾飛,黃維德. 2006. 收入和幸福間關係研究[J]. 華東經濟管理20(7):154-158.

朱建芳,楊曉蘭. 2009. 中國轉型期收入與幸福的實證研究[J]. 統計研究(04):7-12.

新華社調研小組:貧富差距逼近社會容忍紅線. 2010-05-10 取自<http://finance.qq.com/a/20100510/001810.htm>

## 나. 한국어

강상진. 2016. 『다층모형』. 서울: 학지사.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강원택 · 김병연 · 안상훈 · 이재열 · 최인철. 2014.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파주: 21세기북스.

구교준 · 임재영 · 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구재선 ·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25(2): 143-166.

금현섭 · 백승주. 2014 “소득격차와 소득변화, 그리고 미래기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1):141-168.

김경근. 2009. “교육과 ‘삶의 질’.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발표집』. 71-111.

김경동. 2002. 『한국사회 발전론』. 서울:집문당.

김명소 · 김혜원 · 임지영 · 한영석.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2(2): 1-33.

류지아. 2016. “행복에 대한 소득의 상대적 효과” 『한국사회학』 50(1), 255-288.

박주언 · 심수진 · 이희길. 2012. “주관적 웰빙 측정 방안”. 『통계개발원 2012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서문기.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삶의 질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사회학회』. 49(1):111-137.

신승배. 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41(2):183-208

심수진 · 이희길 · 석주영. 2016. “삶의 질 측정: 국제동향과 통계청의 대응”

『조사연구』. 17(2):185

이내찬. 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5-40.

이상봉. 2011. “경제 불평등 구조 분석: 계급, 지역 및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25-57.

이소라 · 홍기석. 2012. “주관적 만족도를 이용한 습관형성 이론과 상대소득 가설의 검증”. 『사회과학연구』. 38(3): 1-27.

이재열. 2007.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질은 어느 수준까지 왔나”. 『사회과학연구원 학술 심포지엄』.

이재열. 2009. “사회발전과 측정:OECD 세계포럼의 이해”. 통계청.

이재열 외. 2013. 『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2015.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기획.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2):3-29

이준구. 2010. “행복의 경제학: 정책적 함의”. 『경제논집』. 44(2):135-166.

이현송. 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이희연 · 노승철. 2013.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고양: 문우사.

임보영· 마강래. 2015. “지역 내 준거집단과 비교한 경제적 격차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50(3): 213-224.

장덕진 외. 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보고서』.

장덕진 외. 2013. “착한 성장을 위한 5개국 거버넌스 비교연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보고서』.

장승진. 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0(2): 43-66

정진성 · 박경숙 · 이재열 · 장덕진 · 장살철 · 고희면 · 장진호 · 이원재 ·

- 안정옥. 2009. 『사회의 질 동향』. 서울대출판부.
- 정지범. 2011. “국민행복 결정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조명한 ·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집문당
- 조승헌. 2006. “행복 · 소득 · 신뢰의 관계: 국제적 경향과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 177-179.
- 최필선 · 민인식. 2012.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지필미디어
- 한보영 · 강정한. 2015. “한국사회의 고밀도 생활권과 이웃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8(3): 75-111.
- 한준 · 김석호 · 하상응 · 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한신갑 · 이상직 옮김. 아브람 더 스반 지음. 2015. 『함께 산다는 것 : 세상의 작동 원리와 나의 위치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 서울: 현암사
-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다. 영어

- Ball, R., & Chernova, K. 2008.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 497-529.
- Becchetti, L., & Rossetti, F. 2009. “When money does not buy happiness: The case of frustrated achiever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8: 159-167.
- Beck, Wolfgang, Laurent J. G. van der Maesen, and Alan Walker. 1997. “Theorizing Social Quality: The Concept’s Validity.” In Beck, van der Maesen and Walkereds.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ck, Wolfgang, Laurent J. G. van der Maesen, Fleur Thomese, and Alan

- Walkereds. 2001.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cker, Gary. 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14.
- Binswanger, M. 2006. "Why does income growth fail to make us happier? Searching for the treadmills behind the paradox of happines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5 : 366 – 381.
- Bjørnskov, C., Gupta, N. D., & Pedersen, P. G. 2008. "Analysing trends in subjective well-being in 15 European countries." 1973–2002.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 317 – 330.
- Blanchflower, David G., & Andrew J. Oswald.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 1359 – 1386.
- Blanchflower, David G., & Andrew J. Oswald.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6(8):1733–1749.
- Boven, L. V., & Gilovich, T. 2003. "To do or to have? That is the ques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6), 1193 – 1202.
- Boven, L. V. 2005. "Experientialism, materialism,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32 – 142.
- Brickman, Philip and D. T. Campbell. 1971.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 in M. H. Appley(ed.), *Adaptation Level Theory :A Symposium* , New York :Academic Press.
- Brickman, P., Coates, D., & Janoff-Bulman, R. 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8), 917 – 927.
- Brockmann, H., Delhey, J., Welzel, C., & Yuan, H. 2009. "The China puzzle: Falling happiness in a rising economy." *Journal of Happiness Studie* 10 : 387 – 405.

- Brown, K. W., & Kasser, T. 2005. "Are psychological and ecological well-being compatible? The role of values, mindfulness, and lifesty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349 – 368.
- Brown, K. W., Kasser, T., Ryan, R. M., Linley, P. A., & Orzech, K. 2009. "When what one has is enough: Mindfulness, financial desire discrepa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727 – 736.
- Caporale, G. M., Georgellis, Y., Tsitsianis, N., & Yin, Y. P. 2009. "Income and happiness across Europe: Do reference values matte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0:42 – 51.
- Campbell, A., Converse P.E. & W.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Ussell Sage Foundation*.
- Carlsson, F., & Qin, P. 2010. "It is better to be the head of a chicken than the tail of a phoenix: Concern for relative standing in rural Chin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9:180 – 186.
- Carter, T. J., & Gilovich, T. 2010. "The relative relativity of material and experiential purch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1):146 – 159.
- Clark, Andrew E., Paul Frijters, & Michael A. Shields. 2008. "Relative Income,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 Clark, Andrew E., & Claudia Senik. 2010. "Who Compares to Whom? The Anatomy of Income Comparisons in Europe." *Economic Journal* 120(544): 573–594.
- Coleman, James S. 1984. "Introducing Social Structure into Economic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74:84–88.
- Cummins, R. A. 1998. "The Second Approximation to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3.
- Davis, E. E., Fine-Davis M. & Meehan, G. 1982. "Demographic determinants

- of perceived well-being in eight European countries.” *Social Indicator Research* 10(4): 341–358.
- Deaton, A. 2008. “Worldwide , Residents of Richer Nations More Satisfied. ” <http://www.gallup.com/poll/104608/worldwide-residents-richer-nations-more-satisfied.aspx>
- Deaton, A.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53–72.
- Diener, Ed, Sandvik E., Seidlitz L. & M. Diener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 Diener, Ed, M. Diener & C. Diener.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5).
- Diener, Ed & F. Fujita. 1995, “Resources ,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 Diener, Ed, & Suh, E.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89–216.
- Diener, Ed, Eunkook M Suh, Richard E. Lucas, & Heidi L. Smit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iener, Ed & S. Oishi. 2000 , “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In Diener Ed & E. M. Suh (eds.) ,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MIT Press* , Cambridge , MA.
- Diener, Ed, & Robert Biswas-Diener. 2002.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2): 119–169.
- Diener, Ed., Lucas R. E., & Scollon, C. N. 2006. “Beyond the hedonic

- treadmill: Revising the adaptation theory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61(4), 305 – 314.
- Diener, Ed, & Robert Biswas-Diener. 2009.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A literature review and guide to needed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2): 119–154.
- Diener, Ed, & Micaele Y. Chan. 2011. "Happy people live longer: Subjective Well-being contributes to health and longevity"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3:1–43.
- Di Tella. Rafael, Robert J. MacCulloch & Andrew J. Oswald. 2001. "Preference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American Economic Review* 91(1):335–41
- Di Tella. Rafael, Robert J. MacCulloch & Andrew J. Oswald.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809–827.
- DiPrete, Thomas A., & Jerry D. Forristal. 1994. "Multilevel Models: Methods and Substa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1): 331–357.
-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in Paul A. David and Melvin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Easterlin Richard A.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1): 35–47.
- Easterlin, Richard A.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Economic Journal* 111(473): 465–484.
- Easterlin, Richard A.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00(19): 11176–11183.
- Easterlin Richard. 2005. "Feeding the illusion of growth and happiness: Areply to Hagerty and Veenhonv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



- Easterlin Richard A, Mcvey L A, Switek M, et al.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7(52): 22463 – 22468 .
- Fernandez, Roberto M., & Jane C. Kulik. 1981. “Multilevel Model of Life Satisfaction: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Neighborhood Compo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3): 840–850.
- Ferrer–i–Carbonell, Ada. 2005. “Income and Well–be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mparison Income Effec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 997–1019.
- Ferrer–i–Carbonell, A. & Ramos, X. 2014. “Inequality and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8(5): 1016–1027.
- Frey, Bruno S., & Alois Stutzer , 1999. “Measuring Preferences by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55:1 –24.
- Georgellis, Y., Tsitsianis, N., & Yin, Y. P. 2009. “Personal values as mitigating factors in the link between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Evidence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91:329 – 344.
- Goodman, Paul S. 1974. “An Examination of Referents Used in the Evaluation of Pa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2(2): 170–195.
- Graham, C., & Felton, A. 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1): 107–122.
- Graham, C. 2011. “Does More Money Make You Happier? Why so much Debate?”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6(3): 219–239.
- Graham, C. 2012. “The Pursuit of Happiness: An economy of well–being” *Brooking Institution Press*.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481–510.
- Haring, M. J. W. A. Stock & M. A. Okum. 1984. “A Research Synthesis of Gender and Social Class as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Human Relations* 37.
- Hayo, B. 2003. “Happiness in Eastern Europe.” *Paper Presented at 5th Conference ISQOLS*.
- Headey, B. & A. Wearing 1992. “Understanding Happiness: A Theory of Subjective Well-Being.” *Melbourne: Longman Cheshire*.
- Hirsch, Fred. 1976. “Social Limits to Grow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irschman, A.O and Rothschild, M. 1973. “The Changing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544–566.
- Hagerty M R,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 1–27.
- Helliwell, J, Wang, S. 2010. “Trust and Well-being.” *NBER Working Paper Series*, Apr 2010, Working Paper No. 15911.
- Helliwell, J, Wang, S. 2014. “Weekends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6(2):389–407.
- Helliwell et al. 2014. “A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Responses on Recent Statistics Canada Survey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8(2):617–643
- Howeii R, Howell C. 2008. “The Relation of Economic Status to Subjective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4(4): 536.
- Howell, R. T., & Hill, G. 2009. “The mediators of experiential purchases: Determining the impact of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social

- comparis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11 – 522.
- Hsee, C. K., Yang, Y., Li, N., & Shen, L. X. 2009. “Wealth, warmth, and well-being: Whether happiness is relative or absolute depends on whether it is about money, acquisition, or consump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6(3), 396 – 409.
- Inglehart , R. & J. R. Rabier. 1986. “Aspirations Adapt to Situations – but Why are the Belgians so Much Happier than the French?” In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 (ed. ) by F. M. Andrews. *Ann Arbor: ICPSR*.
- Inglehart, R & P. Abramson. 1994. “Economic security and value change, 1970–1993”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336–354.
- Inglehart, R., & Klingemann, H. D.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IT Press* 165–183.
-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 Wel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Perspective on Psychological Science* 3(4): 264–285.
- Inoguchi, T., & Fujii, S. 2009. “The quality of life in Japan.” *Social Indicators Research* 92:227 – 262.
-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 Jeffry Sachs. 2015. “UN World Happiness Report”. *UN*.
- John Knight, Lina Song & Ramani Gunatilaka. 2009. “Subject Well-being and Its Determinants in Rural China”. *China Economic Reviews* 20(4):635–649.
- Jan Delhey, Kenneth Newton. 2003. “Who trusts? the origins of social trust in seven societies” *European Societies* (5): 93–137 .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Schwarz, D., & Stone, A. A. 2006.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A focusing illusion. *Science* 312:1908 – 1910.

- Lane, R. 2000. "The Loss of Happiness in the market Democrac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ucas, R. E., & Schimmack U. 2009. "Income and well-being: How big i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75 – 78.
- Luttmer, E. 2005. "Neighbo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963–1002.
- Michael M. 2001. "Relative-income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ross-se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45( 3) : 251.
- McBride, M. 2010. "Money, happiness, and aspirations: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4:262 – 276.
- McFarlin, D. B. 2008. "Life satisfaction around the globe: What role does income play?"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2(4):79 – 80.
- Mentzakisa, E., & Morob, M. 2009. "The poor, the rich and the happy: Exploring the link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8:147 – 158.
- Myers, D. G. 2000.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 (1):56 – 67.
- Newman, K. S. 1999. "Falling From Grace: Downward Mobility in the Age of Afflu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y*.
- Ng , Y. K. 1997 , "A Case for Happiness , Cardinalism , and Interpersonal Comparability. " *The Economic Journal* 107.
- Noll, H. 2002.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Theoretical Framework and System Architec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47–87.
- North, R. J., Holahan, C. J., Moos, R. H., & Cronkite, R. C. 2008. "Family support, family income, and happiness: A 10-year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475 – 483.

Oshio, Takashi, Kayo Nozaki, & Miki Kobayashi. 2011.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in Asia: Evidence from Nationwide Surveys in China, Japan and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3): 351–367.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1815 –1831.

Park, C. M. 2009. “The quality of life in South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92:263 – 294.

Rafael Di Tella RJMA.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809–827.

Ruut V, Hagerty M. 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 – 2004: A reply to Easterlin .” *Social Indicators Research* 79:421–436.

Rayo L, Becker G S. 2007. “Habits, peers, and happiness: An evolutionary perspective .” *American Economic Review* 97(2): 487 – 491 .

Ross , M. Eyman A. & N. Kishchuck. 1986.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J. M. Olson , C. P. Herman , M. P. Zanna (eds.),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Comparison*. Hillsdale N. J.: Erlbaum.

Ryff, C. D. 1995.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 Current Directions.” *Psychological Science* 4.

Schyns, P. 1998.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3.

Senik, C. 2004. “When information dominates comparison: A panel data analysis using Russian subjective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99 – 2133.

Senik, C. 2008. “Ambition and jealousy: Income interactions in the ‘Old’ Europe versus the ‘New’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conomica* 75: 495 – 513.

Senik, C. 2009. “Direct evidence on income comparisons and their welfare

- effect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2:408 – 424.
- Sing, M. 2009. “The quality of life in Hong Ko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92:295 – 335.
- Sirgy, M. J., & Wu, J. Y. 2009. “The pleasant life, the engaged life, and the meaningful life: What about the balance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183 – 196.
- Shin, D. C. & D. M. Johnson.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 Research* 5.
- Symth,R., & Xiaolei Q. 2008. “Inequality and Happiness in Urban China”. *Economic Bulletin* 4(23):1–10.
- Smyth, R., & Qian, X. 2009. “Corruption and left-wing beliefs in a post-socialist transition economy: Evidence from China’s harmonious society.” *Economics Letters* 102:42 – 44.
- Smyth, R., Nielsen, I., & Zhai, Q. 2010. “Personal well-being in urban China.” *Social Indicators Research* 95:231 – 251.
- Solberg, E. C., Diener, E., Wirtz, D., Lucas, R. E., & Oishi, S. 2002. “Wanting, having, and satisfaction: Examining the role of desire discrepancies in satisfaction with inco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725 – 734.
- Solnick, S. J., & Hemenway, D. 1998. “Is more always better? A survey on positional concern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37: 373 – 383.
- Solnick, S., Li, H., Hemenway, D. 2007. “Positional good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373 – 383.
- Stutzer, A. 2004. “The role of income aspirations in individual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4:89 – 109.
- Sweeney, P. D., McFarlin, D. B. 2004. “Social comparisons and income satisfaction: A cross-national examin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7:149 – 154.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UNDP*.

Veenhoven, R. 1993. “Happiness in nations: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in 56 nations, 1946 – 1992.” *The Netherlands: Erasmus University Press*.

Veenhoven, R., & Hagerty, M. 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2004: A reply to Easterl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9:421 – 436.

Veenhoven, R. 2012. “Social Development and Happiness in nations.” *ISD Working Paper Series*. No.2012–03

Veenhoven, R. and David, S.A., Boniwell, I & Ayers, A.C., (Eds). 2013. “Nations of the Good Life.” *The Oxford handbook of happi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61–173.

William Mishler, Richard Rose. 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 30–62 .

World Bank. 2015. “World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Yee, Jaeyeol and Dukjin Chang. 2011. “Social Quality as a Measure for Social Progress.” *Development and Society* 40(2):153–172.

Yu xie, Emily Hannum. 1996. “Regional Variation in Earning Inequality in Reform–Era Urban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4), 950–992.

Zhang, J., Yang, Y., & Wang, H. 2009.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A comparison of China and the USA.”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3):221–225.

## Abstract

# Happiness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China

– Focusing on the Regional Income Difference –

HONG LIA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happiness has been discussed rigorously in the academic realm. While some researchers demonstrated that increase in one's income leads to higher level of happiness (Diener, 1985; Ball and Chernova, 2008; Di Tella et al, 2003; Hagerty and Veehoven, 2006; Sacks, Stevenson and Wolfers, 2008, 2013; Inglehart et al, 2008), Richard Easterlin (1976) pointed out that economic growth of a na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increase in the happiness of its citizens. As the previous researches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happiness at the individual and national levels suggest, economic conditions have an ambivalent relationship with happiness, as it may not influence one's happiness whatsoever while it is essential for the pursuit of happiness. In attempts to use HLM(hierarchical liner model) to uncover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ve effect of income on happiness of people in China. During the 36 years of reform from 1978 to 2014, Chin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as demonstrated in the average annual increase in real GDP close to 10%. However, economic reforms were concentrated on specific regions such as eastern coastal areas of China. This in turn led to regional gap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the coexistence of industrialization, de-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ocesses in one country.

Understanding the consequences of the discriminative reform policy, this paper aims to study whether regional differences have impa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 income and happines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individual income on happiness using the



data from the 2013 China General Social Survey. Specifically, it utilizes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demonstrate how the effect of individual income (Level 1) on personal happiness defers by regional average income and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Level 2).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ree major findings. First, increase in income at the individual level leads directly to higher level of happiness despite of the regional differences. This paper argues that this relationship is attributed to the Chinese people's optimistic expectations that high-speed economic growth will make tomorrow better. Second, the effect of personal household income on happiness is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regional average income and happiness of Chinese people in the transitional period can be explained by the tunnel effect on happiness. Because of the sustained high-speed economic growth, Chinese people today have optimistic expectations for future economic growth in China, which makes the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ineligible. Third, the discriminative reform policy leads to economic disparities among regions, which then results in labor migration. The labor migration affects regional population growth rate that in turn positively influences the effect of individual household income on happiness. There is greater effect of individual household income on happiness in the regions with higher population growth rat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individual income levels have different effects on happiness depending on the region of residence when there is large variance in the regional economic levels.

**Keywords:** happiness, income, Chinese reform policy, regional differences, interaction effects, hierarchical liner model

**Student Number:** 2015-22118